



탄탄한 조세재정  
튼튼한 미래한국

# 공공경제

2022 WINTER Vol.12

기획특집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혁신도시 박람회 울산 혁신도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 『공공경제』와 함께하세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는  
공공기관 정책과 사례, 이슈를 바탕으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경제』가 기관과 정부, 국민 간의 공감과 혁신,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의 방향성

2008년 경제위기와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현대사회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공공부문의 역할과 책무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동시에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화하고, 관리적 자율성은 높아지고 있어 국민과 정부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또한 분화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간에 수평적인 정책 조정과 통합된 지배구조가 필요해지고 있다. Peters와 Pierre(2018) 교수는 공공부문의 구조와 절차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민주적 지배구조의 개편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국가소유권이 정부로 집중되면서 공공기관의 지정·유형 분류, 임원 임면, 경영평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조사, 기능 조정, 예산회계, 이사회 구성 등 지배구조가 일정 부분 표준화됐다. 정부의 사전적, 사후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효율과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또한 기관장, 이사, 감사의 임원 추천 기준과 절차 등은 법적으로 잘 제도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낙하산 인사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어 공공기관의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로 지적되곤 한다.

OECD가 2005년 제정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 관련 정부 기능을 소유권과 규제·산업정책 기능으로 분리하고, 국가소유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집중화가 바람직하며, 전략적 자문, 경영진 감시, 경영진의 임면 등을 수행할 이사회의 권한과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기획예산처 보도자료, 2005. 4. 28.). 당시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에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기업 지배구조의 최적 관행"으로 평가받고 있어, "정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주요 내용에 대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7년 탄생한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해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22차례 개정이 있었고, 국가의 소유권 행사를 적용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2022년 기준으로 130개까지 증가하다가 최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및 지정 기준의 조정에 따라 2023년에는 약 9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자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더 높은 경영 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제39차 OECD 공기업 국가소유권 작업반 회의에서는 ① 반부패와 청렴성 가이드라인 마련, ②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기업의 역할 강화를 논의하고, ③ 영국, 핀란드, 그리스 등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국가소유권을 행사하는 국가주주회사(State-owned holding company)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제시한 2005년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운법」 개정의 역사적 맥락, 최근 OECD 국가들이 국가소유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공공기관의 이사회를 활성화하려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도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공공기관 내외부 지배구조의 개편을 생각해 볼 시점이다.○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 CONTENTS

## 공공경제

2022 WINTER Vol.12



### 표지 이야기

울산에 위치한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모습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발행인	김재진 KIPF 원장
편집인	라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편집위원	변민정 KIPF 정책사업팀장 장정순 KIPF 연구출판팀장
제작지원	유승현, 송경호, 소병욱, 선혜경
외주지원	임영현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등록일	2020년 5월 13일(세종,바00032)
디자인/제작	고려씨엔피

### 정기구독 안내

신청방법	우편,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전화	(044) 414-2457
이메일	soe@kipf.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구독료	권당 3,000원 (1년 정기구독 10,000원)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1005-103-961530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공공경제』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 『공공경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획특집



- 08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정유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장
- 12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김동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15 전문가VIEW I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역할과 미래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 18 Round Table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번 「공공경제」  
Vol.12는 어떠셨나요?**

「공공경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번 호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과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아쉬웠던 점 등을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셔서 담당자 이메일(soe@kipf.re.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3만원)을 보내드립니다. 당첨된 독자분께는 보내주시는 연락처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공공기관 NOW**



- 26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 28 Trend Focus**  
메타버스의 미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연구팀장
- 32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공기업 이사회  
송경호, 선혜경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 38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여전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장
- 46 혁신이야기 I\_한국전력공사**  
에너지 신산업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에너지밸리  
최재연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에너지밸리추진실 차장
- 48 혁신이야기 II\_한국도로공사**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김천  
김현신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차장
- 50 혁신이야기 III\_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강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추진단 설립추진부장
- 52 혁신이야기 IV\_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우수사례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  
이영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수석

**공공기관 TALK**



- 56 CEO인터뷰 I**  
생산·유통·소비 데이터를 연계한 축산 유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 62 CEO인터뷰 II**  
신속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겠습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 68 혁신도시 박람회**  
울산 혁신도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74 잡(JOB)담 I**  
한국언론진흥재단  
정제우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과장
- 78 잡(JOB)담 II**  
한국문화예술회원위원회  
백지윤 한국문화예술회원위원회 인재성장부 과장
- 82 나의 취업성공기 I**  
다시 시작할 준비  
김미경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담부 대리
- 84 나의 취업성공기 II**  
느리지만 강한 나의 성장기  
김종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대리



# 기획특집

이번 <기획특집>은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주제로 정부와 전문가, 공공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정책리포트'에서는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전문가VIEW'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요 성과와 향후 역할을 고민해 본다. 마지막으로 'Round Table'에서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자율·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정책리포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 전문가VIEW I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 전문가VIEW II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역할과 미래

## Round Table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 자율·책임·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추진 -



정유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제도기획과장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3대 중점과제

새정부는 ①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②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③ 민간-공공기관 협력이 라는 3대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첫 번째,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는 비핵심·민간경합·중복 기능 축소와 함께 인력·복리후생·불요불급한 자산 등 방만경영 요소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와 7월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고, 현재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수립·제출한 혁신계획안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 향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의 협의·조정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을 위해서 데이터 등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유하고, 공공기관의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민간 중심의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난 9월 23일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 중 두 번째로, 기관의 자율과 책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난 8월 18일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추진 배경

공공기관의 인력 규모는 지난 5년 동안의 변화만 보더라도 2017년 5월 기준 33.4만명에서 2022년 5월 현재 44.9만명으로 11.5만명 늘어나는 등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은 2007년 「공운법」 제정 당시의 정원 기준 50명이 2022년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직접 경영감독 범위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가 2007년 102개에서 2022년 130개로 증가했다.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간 법상 관리체계가 점차 안정화되고,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역량이 향상된 측면 등을 종합 고려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공공기관 관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기관의 특성과 업무 성격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 적용 등 경직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기관의 자율적인 업무 추진과 책임경영이 제약받는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 정부·기관 부담액 500억원 이상이라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이 사업 대형화 추세 등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2016년 법제화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출자·출연할 때 개별 사업별로 사전에 주무부처, 기획재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것은 기관의 투자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개별 출자·출연 결정 시 기관의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재무관리 측면만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 지표의 비중이 재무 가치 지표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공공기관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성과를 도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더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업무와 성격이 다양한 220개의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이라는 단일 유형으로 관리되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이나 국립대병원 등 공공 보건의료기관, 규모가 작은 기관처럼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리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내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공 중심 조직운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업무량이나 직무 난이도와 무관하게 근속연수에 의존하는 연공 중심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확대 등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노사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보수뿐만 아니라 인사·조직 관리를 포함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나아가기에는 현재보다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의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사회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투명화와 경영공시 확대 등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을 상향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의 관리 범위를 조정하고, 공공기관과 주무부처의 권한 및 자율성을 확대한다. 옛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분류 기준과 경영평가의 ‘중소형’ 구분 기준을 감안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분류하는 정원 기준을 현재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기획재정부가 직접 경영 및 감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는 현재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42개(잠정) 감소).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유형이 전환되면, 기관 경영평가를 시행하는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기관별 주무부처로 바뀌고, 임원 임명은 「공운법」 대신 개별법이나 정관에 따르게 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나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돼 기관이 주무부처의 관리하에서 사업을 더욱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금액을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국가재정 및 공공기관 부담분 500억원을 1천억원 이상으로 각각 두 배 상향할 계획이다. 개별 사업건별로 진행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재무건전성 관리제도 개편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 등을 통한 공공기관 전반의 사업·투자 관리가 함께 추진되면서 기관 사업 추진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를 통한 자율·책임경영체제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경영평가를 할 때 사회적 가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합리화한다. 사회적 가치 지표는 2017년 공기업 기준 11점에서 2022년도 25점으로, 그동안 가파르게 확대돼 온 점을 감안해 당초의 정책 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조정해 15점으로 축소한다. 반면, 최근 한전의 대규모 적자 등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우려 확대 등을 감안해 기관의 재무성과 및 업무효율에 대한 평가를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공공기관은 연구, 의료, 소규모 조직 등 업무 성격과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구개발목적기관은 교수·박사급 연구인력 채용 시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보 수집 범위를 주무부처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전문성을 살리고 기관의 업무 성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외부 심사위원 비중 축소, 제한경쟁 채용 시 동일 자격에 대한 반복적인 부처 협의를 생략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산 범위 내

에서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주거비에 한정하던 지원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출연연 등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우수인력 채용을 위한 자율성을 확대해 연구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타공공기관 중 공공 보건의료기관은 감염병 같은 위기 시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위기·재난 상황을 더 효과적이고 신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평가 시 평가지표를 축소하는 등 평가 간소화를 통해 행정 부담을 완화해 기관의 고유 기능과 업무 수행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기관의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한다. 직무급은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 우수기관의 총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기획재정부 경영평가 시 관련 배점을 상향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급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관 보수 담당자 등을 상대로 맞춤형 컨설팅, 직무급 제도 설명회 등도 병행해 나가려고 한다. 나아가 공공기관의 조직·인사 관리 또한 직무·성과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해 조직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넷째, 이번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에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책임경영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관 내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고, 이사회를 내실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의 활동 내용을 공시항목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ESG 항목을 추가로 발굴하고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등 경영공시를 국민이 더욱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고 내실화할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 기준을 강화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필요

현재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며 2022년 하반기 내에 대부분의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자율·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기관의 효율적·합리적 운영을 통한 경영성과 제고를 지원해 '작지만 일 잘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응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김동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공기관의 혁신 및 관리체계 개편의 필요성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지난 6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에너지산업, 사회기반시설,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부 정책을 실현하는 최일선의 현장에서부터 미래 사회를 위한 디지털 공공시스템 구축까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 왔다. 현재 공공기관 수는 350개, 인력은 약 44만명, 예산은 761조원(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비중도 막대하다.

그러나 2022년 6월 진행한 공공기관 정책 인식도 조사(한국리서치) 결과,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고(전문가 64.9%, 일반국민 63.8%),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전문가 77.3%, 일반국민 71.8%)는 의견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 비대화·방만경영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공공기관 인력은 2017년 5월 33.4만명에서 2022년 5월 44.9만명으로 5년간 약 34% 증가했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2016년 말 499.4조원에서 2021년 말 583.0조원으로 83.6조원이나 급증했다. 반면 공기업 영업이익은 2017년 13.5조원에서 2022년 0.7조원으로 대폭 하락했다. 수익으로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공기업 수도 2017년 5개 기관에서 2022년 18개로 급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상반기 1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연말까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수익성·생산성 하락으로 재무구조 악화가 더욱 심화된다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무너지고 결국 정부 재정 악화로 국가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새정부는 공공기관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등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개혁의 핵심은 지난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인력과 예산이 급격히 과대해진 상황을 바로잡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생산성·업무효율성 등을 회복하고 혁신·자율·책임·역량 기반 공공기관 운영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중추역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실현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다. 이제 공공기관은 새정부의 공공기관 정책 기초와 방향을 체감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비효율적인 요소들은 신속히 걷어내어 몸집을 줄이고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합리적 경영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방향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부 정책 실행에 대해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개혁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와 컨설팅 기능의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시대적 사명에 따라 개편되고 운영되어 왔다. 현재 공공기관은 신속하게 공공기관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을 달성하면서도 기관 경영의 효율성·수익성을 회복해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특별팀(TF)'을 만들어 경영평가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했고, 지난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다.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15점으로 하향 조정했고,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한 재무성과 평가의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대폭 상향했다. 뿐만 아니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의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5점 배점의 가점 평가도 신설했다. 공공기관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효율화를 추진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효율성을 높여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 본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은 경제성과 사회적 공익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한 방향으로 급진화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될 경우, 개혁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공공기관의 암묵적인 저항이 버티기로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신속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문과 중·장기에 걸쳐 변혁이 필요한 부문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영평가제도는 이러한 단계적 접근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에 개혁이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해 경영평가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단기간에 개혁이 가능한 영역들은 시급한 과제들을 중심



으로 간소화·예산 절감·비핵심자산 정리 등을 수반한 개편이다. 이러한 개편들은 공공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관별 재무상황에 따라 단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세부 평가 지표의 선정, 공공기관 규모 확대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분류 기준 상향에 따른 소규모 기관 평가 부담 완화 및 간소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평가, 혁신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계획부터 단계적 평가 등은 공공기관이 단기간에 대응할 수 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 평가의 경우에도 연구·보건의료 등 기관 목적과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운영체계를 적용하면 이들 기관의 업무효율성을 강화하고 기관 관리도 더욱 체계화할 수 있다. 소규모 기관들에 대해서도 평가지표 수 등을 대폭 간소화하면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본연의 핵심 사업 역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의 유사·중복 지표 등을 축소하고 고도화하면 이들 기관은 평가 부담을 덜고 기관 설립 목적에 따른 핵심 기능에 인력·예산을 집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게 되면 일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효율성도,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도 더 높아지게 된다.

둘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경영평가제도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어젠다는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조정, 단순 구조조정을 넘어 산출가치를 향상시키는 혁신, 직무·성과 중심에 기반한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글로벌 수준의 대국민 서비스 달성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에 수행해오던 기관의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은 구성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단기간에 성과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강력한 개혁의지를 가지고 연도별 기능 조정 노력과 성과를 단계적으로 경영평가제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효율성의 관점은 투입 절감과 산출 증대의 측면에서 모두 가능하다. 효율성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다 보면 투입 절감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부문에서 공공기관의 산출가치를 늘려가는 혁신은 투입 절감보다 더 많은 승수효과와 유발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 산출재는 외부 경제성을 촉발시키고 확산(spillover)시키는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R&D 지원과 투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연구 결과를 생산한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들이 많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기업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인 중 하나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가 글로벌 수준이 되려면 국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생산성과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부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실적 비교를 통해 글로벌 지표를 도입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공공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 부문에서 글로벌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제도에 글로벌 지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는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역할과 미래



김현석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재정투자평가실장

##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예산·회계 측면에서는 1999년 1월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해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를 산출물 또는 성과에 기반한 예산제도로 전환하고자 했다.<sup>1)</sup> 이와 함께 1999년 4월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조의 2(대규모개발사업의 예산)를 신설하면서 재정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목적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하 ‘재정사업’)에 새롭게 투자할 때 사전 타당성평가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시행해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2006년 10월에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고, 제38조에서 재정사업 예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도 개혁을 추진했는데, 2007년 1월에는 기존 공공기관 관련 법률을 일원화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을 제정해 더 체계적으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친 2010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공기관 금융부채 수준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권고했다.<sup>2)</sup>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정전략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방안’ 보고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개정 등을 통해 2011년부터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이하 ‘공공기관사업’)에 제3의 기관에 의한 예타를 본격 시행했다. 그리고 2016년 「공운법」 제40조 제3항을 신설해 공공기관사업 예타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경과와 주요 성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사업 예타 제도는 2011년 도입 후 변화하는 여건에 따라 개편이 이뤄져 왔다. 대상 사업의 기준금액은

1)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 2001년 시범사업 추진 지침」, 2000.  
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편성과 출자 등의 투명성 강화 방안」, 2010; 국회예산정책처, 「금융부채 과다 공공기관의 재무 및 사업관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0.

당초 재정사업과 유사하게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이었는데, 2016년 「공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이 1천억원과 500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네 차례에 걸쳐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편됐다. 대체로 ① 조사 절차의 신속화, ② 사회적 가치의 고려, ③ 해외사업과 국내사업 간 차별화 및 개별 사업의 특성 반영을 위한 노력이 이뤄졌으며, 예타 신청 횟수 확대, 종합평가(AHP) 운영방식 변경, 예비협의 절차의 마련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을 다각적으로 내실화하고자 했다. 한편, 2020년에는 대규모 투자사업들에 대해 사업 시행 단계에서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고자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별도 제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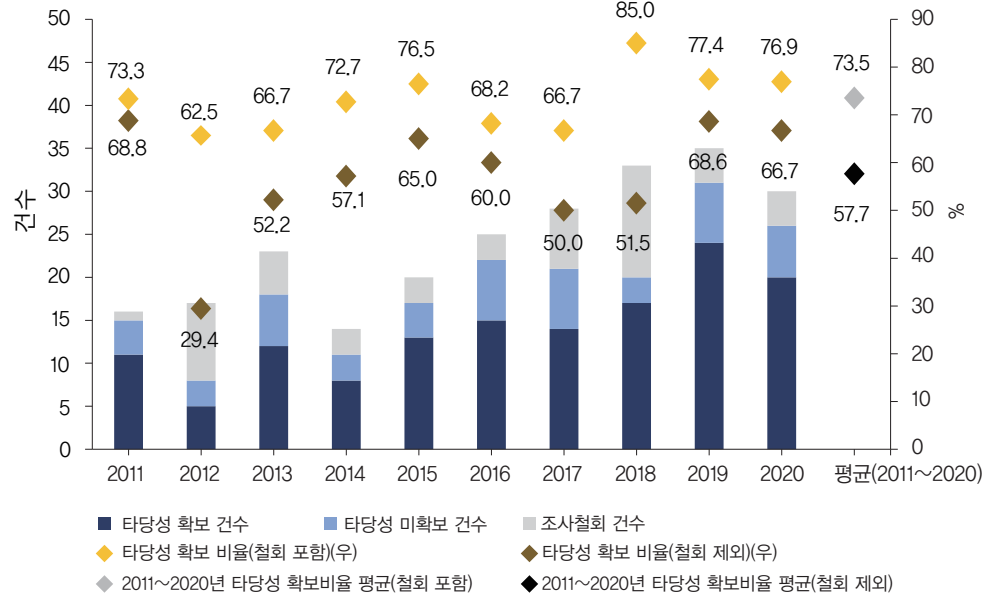
이러한 공공기관사업의 예타 시행은 어떠한 측면에서 기여했을까? 제도가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는 전제하에 크게 네 가지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첫째, 기관의 입장에서 예타를 시행하기 전 대비 시행 후의 주요 평가요소(공공성, 수익성 등)들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더 충실히 세우게 된다. 둘째, 예타를 수행하는 도중에 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은 자발적인 '조사철회 절차'를 통해 추진이 억제된다. 셋째, 타당성 확보 결과에 근거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여 기관의 투자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종합평가(AHP) 평점'이 포함되는데, 결국 0.5를 기준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와 얼마나 타당한지에 대한 정보를 기관에게 제공하게 된다. 넷째, 조사 결과에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효율적 대안이 제시되거나 향후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제언이 담긴다는 점에서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계획 재수립 또는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상의 성과들을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아쉽게도 간단하지 않다. 일단 드러나는 지표들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다. 2011~2020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예타 착수가 이뤄진 241개 사업을 살펴보면,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 타당성 미확보 사업, 조사철회 사업은 각각 139개(57.7%), 50개(20.7%), 52개(21.6%)였다. 조사철회 사업 수와 타당성 미확보 사업 수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봤을 때,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성과와 세 번째 성과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제도 개편 사항들의 직간접적 영향을 무시했을 때, 연도별 타당성 확보 비율이 약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점은 첫 번째 성과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앞으로의 역할과 기대

정부는 지난 8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2023년도부터 시행할 혁신방안을

**그림 1**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결과



자료: KDI, 「2021년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차보고서」, 2022.

제시했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별 관리 차별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①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② 해외사업 평가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 사업 기준금액을 두 배씩 높여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규정하고, 해외사업 평가 시 수익성을 더 강조하는 가운데 사전 분석 결과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부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전자는 사업비 규모 확대 추세에 따른 비정기적 기준 조정, 후자는 사업유형에 더 특화된 평가방식 및 절차의 마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도 개편의 ‘종합평가 평점’을 예단하기에 앞서 지금 시점에서 확실한 지향점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제도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한,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의 큰 틀에서 그러한 역할이 조금이라도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조사수행기관, 공공기관, 정부 모두의 세심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수행기관은 개별 조사에서 (또는 별도 연구를 통해) 사업유형별 세부 분석방법의 개발과 적용을 고민해 더 합리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공공기관은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의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는 데 따르는 비용 중 하나는 사업 시행 의사결정과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조사수행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수행 과정을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노력이 전제되었을 때 향후 예정된 개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라영재**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에너지, SOC, 의료, 복지 등 공적필수기능(Public Utility)을 수행하며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지배구조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OECD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서 이사회에 관한 권한, 이사 선임 절차와 임기, 이사의 책임과 평가, 해임 등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실제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전문가분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욱**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중요성은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1997년 말 IMF를 통해 전체 공공부문의 조직·인력 구조와 행정편의적인 감독·규제로 인한 비효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말만의 개혁(No Action, Talk Only)'에서 벗어나 개혁에 착수한 것이 공공개혁의 처음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2002년 12월 발간한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백서』에서 우리나라의 위기는 외환위기로 표출됐지만 근저에는 세계화·정보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읽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인일함이 놓여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운법」이 제정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고,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배구조 및 이사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운법」이 규정한 이사회 관련 조항을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사회에 자율성, 책임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도 존재합니다. 이



### 일자

2022년 11월 16일(수)

### 장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

### 사회

라영재

### 토론자

이종욱, 김제선, 오유석, 노광표

### 정리

유승현

Round Table 원고 내용은 참석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및 각 참석자 소속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유석** 먼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기대와 달리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해외 우수사례도 그 나라 고유의 문화가 녹아들어 있고,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공공기관 이사회’ 관련 이슈와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관한 쟁점은 크게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 책임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서로 배타적이기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부 견제장치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자율성도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김제선**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민간기업과 유사합니다. 이사회, 감사 등의 내부 견제장치를 내부 지배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 등 정부의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부분을 외부 지배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성 중심의 공공기관체제 재구성, 공공기관 외부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 공공기관 내부 지배구조의 개편,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의 상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노광표**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지만, 조직의 역할, 서비스, 규모에 따라 많은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350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사회 운영은 제한적이고 자율성이 취약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들은 이사들의 권한과 책임이 보장되지만,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경우는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이 많지 않고 운영이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정부가 일정 정도 자율성을 주면서 사업과 운영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이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태도가 요구됩니다.

**라영재** 공공기관 이사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정부 중심으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겠지만,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종욱** 「공운법」 제1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을 위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공공기관 규모에 따라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사회 의장과 CEO 분리, 내부 상임이사 최소화, 감사위원회 및 상임감사 확대(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토대로 비상임이사를 선임했는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회 관련 공시 강화는 책임경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유석** 이사회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임원 추천 문제)의 제도적인 개선과 적격인사 기준 마련(특히 전문성 문제), 기준에 따른 충분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독립적인 이사로서 자율적으로 책임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자문에 기여하도록 훈련)과 지원체계(정보 제공 및 충분한 이해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설명)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조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비상임이사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함께 제도 운용에 필요한 부수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특히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의 경우 OECD 공기업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선언적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운영 공개 범위는 공기업(시장형, 비시장형 등), 준정부기관 등 그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 보장은 당연하지만, 임기 역시 역할과 권한, 책임과 연동되어 있는 만큼 경직된 제도 운영보다는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역할이 가능하고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임기를 정해 운용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입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연임보다 단임이 좋을 듯하나 이 또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재선** 서로 다른 미션과 사업 영역, 사업환경, 정부 정책을 수용해야 할 의무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적 환경과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정보 비대칭성, 낙하산 논란, 전문성 부족, 토론 문화 부재 등으로 비상임이사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부 주도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자, 생산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소비자단체, 책임 있는 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이사회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리영재**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종욱**  
신구대학교  
스마트사무경영과 교수



**김제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오유석**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

**노광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의 역할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  
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방안들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임금피크제 도입은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높은 연공성을 약화시키고, 고령  
자에 적합한 직무와 보수의 연동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위  
해 다양한 임금체계를 혼합한 제도를 기관별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  
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사회에 직원 대표의 참관 및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적극 고  
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영재** 민간기업은 시장을 통해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으나, 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독  
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 민간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여쭙보고자 합니다.

**이종욱** 공공기관 성과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가 지는가를 자문하게 됩니다. 매년 정  
기적으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기관의 책임성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실시간 평가받는 민간과 달리 공공기관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  
기관은 다층적 대리인 문제로 책임지는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에  
서 낮은 평가를 받아도 책임지는 주체가 기관장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준정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정부 부처 당연직 이사제의 확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  
회 활동의 핵심은 바로 책임지는 이사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유석** 공공기관의 관리통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지만 경영진 감  
시와 이사회 리스크 관리, 책무성 등 공공기관이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부 장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  
적인 혁신과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내외부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  
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제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은 경영평가입니다. 경  
영평가 결과는 성과급 지급, 우수기관 표창, 부진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상황 점검, 부진 기관의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는  
데 이 중 핵심은 성과급 지급입니다. 기관은 경영평가를 곧 성과급 등급으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어 기관의 소명을 실현했는지 성찰의 기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를 통해 향후 기관의 성과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자율과 책임경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스로 경영목표와 수단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관별 설립 목적에 부합한 사업, 같은 비용으로 더 많고, 좋으며 고른 효과성을 측정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노광표**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은 기관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중 시장성이 높고 규모가 큰 공기업의 경우,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및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스스로도 정기적인 경영관리 및 사업 점검을 통해 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공공기관 분류체계 개편과 같이 정부 당국은 공기업의 관리감독에 집중하고,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 권한을 대폭 이양해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리영재**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 행정개혁도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현재 중앙집중형 소유권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국가소유권 구조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사례가 있다면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종욱** 공공기관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회는 모든 경영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지배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사회가 부여받은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국회와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와 토론이 많이 이뤄졌고, 공감대도 조성했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의 편익만을 생각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사례는 프랑스의 공기업 지배구조입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재무부 산하 APE(공기업관리청)이 이사회의 멤버로 참여해 공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오유석**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로와 사회문화 특성상 현재 ‘중앙집중형 소유권 구조’를 당장 개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관장 교체에 따른 경영공백, 낙하산 및 정실인사에 따른 부실·방만경영 등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 책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적 절차와 의사소통, 민주주의 수준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OECD 국가 중 부정부패지수는 높고, 사회신뢰지수가 낮은 사회입니다. 중앙집권형 소유 구조를 유지하되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비상임이사 제도 개선과 함께 공운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대통령제를 갖고 있고 공화주의의 역사적 경로, 문화 유사성이 있는 프랑스가 벤치마킹 가능해 보이지만 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김제선** 공공기관은 공공재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은 일반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합니다.

행정은 공익을 증진시키고 시민에게 봉사하며, 국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 주도적인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공공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통해 각 기관의 고유한 미션, 사업환경을 반영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 APE(공기업관리청), 핀란드 SOSD(공기업관리청)가 공공기관 관리기구를 독립기관형으로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운위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거버넌스 기구로서 실질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광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체계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는 OECD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2007년 「공운법」을 제정하여 중앙집중형 소유권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공운법」 제정 이후 공공기관 대상 통일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사회 구조의 개편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확대한 점, 공운위를 설치하여 민관 협치를 이룬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주도적인 관리체계로 인해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힘들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고 벌써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소유권 구조나 정부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대해 해외사례를 많이 참고했으나 국가별 공공기관의 범위, 역할 등에서 차이가 있어 벤치마킹 요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감안해 공공기관 감독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형 공기업 관리감독은 현 체제를 유지하되, 그외 유형의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 감독 기능을 이양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기와 방식을 현재의 1년 단위 평가에서 1~3년으로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사업 환류 시스템 중심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공기관 NOW

〈공공기관 NOW〉는 최근 주목받는 국내외 동향과 기관사례를 통해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공공정책 동향’에서는 공공기관 정책 관련 보도자료와 현안을 다루고, ‘Trend Focus’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기업사례를 소개하면서 미래 산업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글로벌리포트’에서는 OECD 국가별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현황을 이사회 중심으로 소개하고, 글로벌 환경산업의 규모와 기술수준을 비교하여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한다. ‘혁신이야기’에서는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의 고민과 노력, 성과를 우수사례로 다뤘다. 이번 호는 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밸리 조성사례, 한국도로공사의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설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을 소개한다.

**공공정책 동향**  
정책동향 소식

**Trend Focus**  
메타버스의 미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동향**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공기업 이사회

**글로벌리포트\_공공기관 해외사업**  
여전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혁신이야기**  
한국전력공사 / 한국도로공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정책동향 소식



###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0일 '공공기관 안전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로·철도·공항 등 주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안전관리 담당 부기관장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각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최일선 집행기관이자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아무리 작은 안전 문제라도 소홀히 했을 경우,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경영진(CEO, 상임이사)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안전부서 직원 역량 강화 교육, 맞춤형 컨설팅, 실시간 안전신고 등 공공기관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안전 대책들이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확정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월 29일)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을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에서 점검하고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을 살펴보면, 124개 기관이 330건(11.6조원)의 비핵심 부동산을 매각하고, 107개 기관이 189건(0.7조원)의 불요불급한 여타 자산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69개 기관은 275건(2.2조원)의 비핵심/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합니다. 이외에 청사와 관련해서도 26개 기관이 56건(1.0조원)을 매각하고, 신규 임대 62건(27개 기관) 및 임차 면적 축소 86건(51개 기관) 등의 효율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번 자산효율화 계획은 공공기관의 자산을 고유·핵심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자산 중심으로 재편(자산 구조조정)하고, 경영 비효율과 누적 손실 부문을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산효율화에 따른 회수자금은 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국정과제 등 정책과제 이행에 활용할 계획이어서 공공부문이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혁신을 추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1월 1일 ”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 검증을 거쳐 설정된 소비기한으로 식품안전도 지키고,  
식품폐기물도 줄여 지구환경도 지킵니다.

# 메타버스의 미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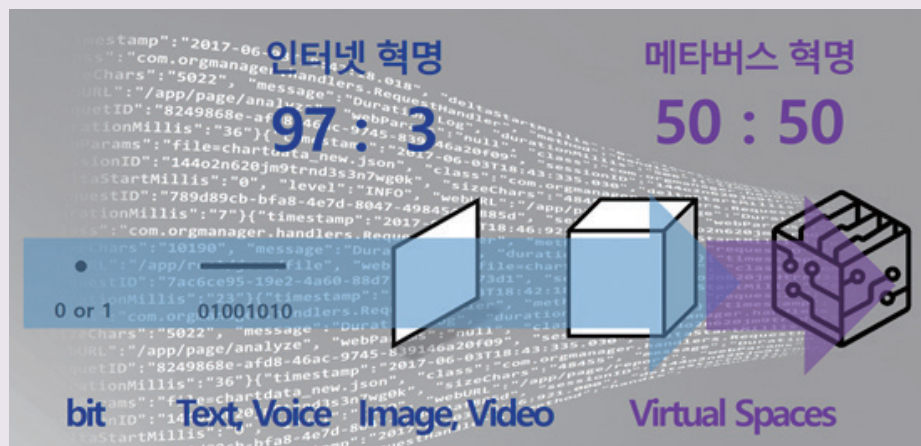
이승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연구팀장

## 디지털 연결의 진화, 메타버스

비트(bit)의 탄생과 함께 우리의 디지털 연결이 시작됐다. 비트는 0 아니면 1이고, 비유하자면 점(點)과 같다. 1개의 비트는 크게 의미 없지만, 점을 연결하면 선(線)이 되는 것처럼 비트의 조합을 통해 우리는 텍스트를 전송할 수 있고 아날로그 음성을 디지털로도 바꿀 수 있다. 선이 모여 면(面)을 이루듯 우리는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고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면이 모여 공간을 이루듯 우리는 게임 등과 같은 가상공간(Virtual Space)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20년이 넘는 인터넷 혁명의 시간 동안, 우리의 디지털 연결은 97%가 점과 선 그리고 면(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이뤄졌다.

이제 시작하는 인터넷 이후의 세상, 메타버스 시대에는 가상공간에서 생활하는 비중이 50%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유니티(Unity) CEO 존 리치텔로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의 3~4% 정도가 3D로 제작되었고, 이 비중이 나중에는 50%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과 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다. 이

그림 1 디지털 연결의 진화



자료: 이승환(2022), 『메타버스 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 45』

가상공간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수준을 넘어서, 놀랍고, 지능화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게임을 넘어 우리의 일상, 일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 메타버스 시대,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프롭테크(proptech, 부동산에 IT기술을 접목한 온라인 서비스) 기업 직방의 직원 350명은 2021년 2월부터 메타버스에서 전면 근무 중이다. 강남역에 있는 빌딩으로 출근하다가 이제는 자체 개발한 메타버스 오피스 ‘소마(Soma)’에서 일하고 있다. 직원들은 PC로 아바타를 설정하고 소마(Soma)에 로그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현실과 유사한 공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가상건물 로비가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무층에 내리면 회사 동료들을 아바타로 만날 수 있다. 아바타 가까이 가면 동료의 얼굴이 보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멀어지면 얼굴이 사라지고 소리도 멀어진다. 직방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 감소, 제3의 지역에서 근무 가능 등을 만족하고 있는데, “지옥철에서 출퇴근하는 2~3시간이 사라져 좋아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며 근무할 수 있어 좋아요.”,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에서 지내며 근무해 보고 싶어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근무의 장점에 만족하

고 있다. 직방에 입사하기 위한 면접도 가상 오피스에서 이뤄진다. 공간의 제약이 없어짐에 따라 글로벌 인재 채용도 가능해진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어디서든 30초 안에 출퇴근할 수 있어 유능한 인재들이 세계 어디서나 국적과 상관없이 소마(Soma)에서 함께 일하고 소통하며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과거 오프라인 출근 시 회사가 매일 부담하던 수천만원의 임대료도 이제는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 2022년 상반기 기준, 직방이 만든 메타버스 건물에 직방과 아워홈, AIF 등 20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매일 2천여 명이 출근한다.

게임 기업 컴투스는 가상세계 컴투버스(Com2Verse)와 2,500명의 직원이 일할 가상공간인 오피스 월드를 공개했다. 컴투버스는 현실 속 다양한 서비스를 가상세계로 옮겨온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가상 오피스 공간 ‘오피스 월드’, 쇼핑, 의료, 금융 등을 이용하는 ‘커머셜 월드’, 게임, 음악, 영화, 공연으로 여가를 즐기는 ‘테마파크 월드’, 이용자 소통과 공유의 장이 되는 ‘커뮤니티 월드’로 구성돼 있다. 컴투스는 컴투버스를 2021년 12월에 시연하고, 일하게 될 모습도 공개했다. 컴투버스로 출근한 신입사원의 하루를 따라가며 실제 직장 생활이 이뤄지는 모습과 업무환경을 공개했는데, 출퇴근, 스케줄 관리, 규모별 회의,

그림 2 직방과 컴투스의 가상오피스



자료: 직방 · 컴투스 유튜브

프레젠테이션 등 기본 근무 지원은 물론, 근거리 화상 대화 기능 등으로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메타버스 업무환경을 구성했다. 또한 컴투스는 직원들의 일하는 공간과 함께 타 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컴투스 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은 메타버스 공간에 하나금융 서비스를 접목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공동 추진한다. 컴투스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에 하나금융그룹 임직원 업무공간인 가상 오피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핀테크를 선보일 예정이다.

글로벌 기업 이엑스퍼리얼티(eXpRealty)는 코로나 19 이전부터 모든 직원이 가상 오피스 이엑스퍼월드(eXpWorld)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엑스퍼리얼티는 2022년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Glassdoor)가 발표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크리에이터 경제, 새로운 생산과 소비가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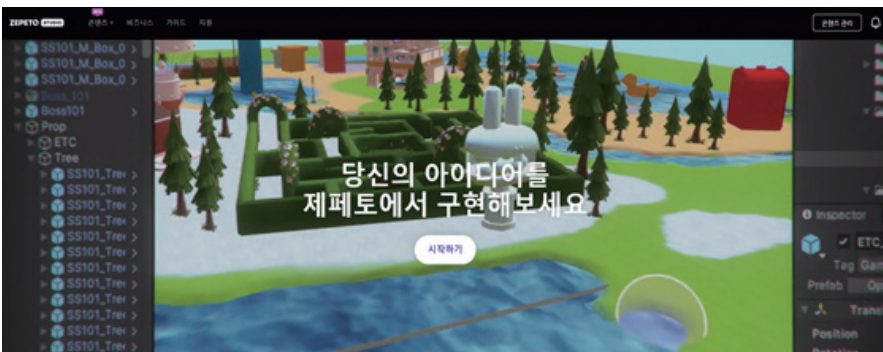
제페토는 3D 아바타를 사용해 누구나 가슴 속에 꿈꾸어 왔던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이다. 상상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페토의 가상공간 안에서 제작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앱과 스튜디오 등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제페토 이용자

는 3.4억명에 달하며, 모든 이용자는 생산플랫폼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건물, 조경, 패션 소품 등 자신만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다.

제페토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는 283만명으로, 이들은 제페토 스튜디오를 통해 약 1억 8,400만개 아이템을 판매, 300억원 이상 아이템 거래액을 기록 중이다. 아이템 판매를 통해 역대 연봉자가 등장하며 새로운 직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제페토 안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는 방법이 추가되고 있다. 제페토 라이브는 본인이 꾸민 제페토 아바타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제페토 스트리머들은 제스처, 코디, 아이템, 배경 설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해서 방송을 제작할 수 있고, 시청자들은 채팅도 하며 마음에 드는 스트리머에게 코인 또는 썸 아이템을 후원할 수 있다. 제페토의 아바타는 제페토 드라마, 상황극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 중이다. 가상현실의 3D 아바타를 이용한 드라마 제작이 Z세대 사이에서 유행중이다. 이들은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아바타를 이용해 드라마를 제작하고 소비한다. 크리에이터들은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를 지나 이제는 메타버스 드라마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명품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포트나이트 내 가상매장을 만들어 사람들이 직접 와서 옷을 입어보고 구매할

그림 3 제페토 스튜디오



자료: 제페토

그림 4 발렌시아가의 포트나이트 의상과 옥외 3D광고



자료: 포트나이트, 발렌시아가

수 있도록 했다. 발렌시아가의 실제 의상을 3D 스캔해 가상으로 구현하고, 실제 원단 소재와 질감을 언리얼 엔진을 활용해 현실적으로 재현했다. 또한 컬래버레이션 의상을 현실에서 구매하면 포트나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함께 제공해, 쿠폰을 등록하면 포트나이트에서도 구매 의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과 현실 모두에서 발렌시아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뉴욕과 런던에서 옥외 3D광고도 진행했는데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광고를 통해 사용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했다.

###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4I 믹스(Mix)로 새로운 경험을 만들자

4I는 상상(Imagination), 몰입(Immersion), 지능(Intelligence), 상호작용(Interaction)을 의미한다. 범용기술인 가상융합(XR) 기술, 블록체인 등 데이터 기술(Data Technology),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을 결합하면 차별화된 경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 메타버스 경험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4I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엄마가 죽은 딸을 만난 가상현실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떠올려보자. 현실에선 불가능한 상상

(Imagination), 몰입(Immersion)되는 가상공간, 지능(Intelligence)이 만들어낸 가상의 딸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한 감각의 전달, 4I가 유기적으로 연계돼 감동적인 메타버스 만남이 이뤄졌다. 이 중에서 하나만 없었더라면 감동을 온전히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에 만들어진 많은 메타버스가 주목받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4I 믹스(Mix)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B2B, B2G 영역에서 더욱 그렇다. 멋진 문화 유적지를 메타버스로 만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몰입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유적지를 본 후 다시 같은 메타버스로 들어가고 싶을까?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경험과 상호작용이 있지 않으면, 단순히 몰입만으로는 다시 들어갈 유인이 크지 않다. 이는 메타버스 생태계 안에서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혼자서 4I 역량을 모두 갖추기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메타버스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제 인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과 관성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 구상이 필요하다. 다양한 분야에 인간×공간×시간을 결합한 새로운 메타버스 경험을 설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 OECD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공기업 이사회



\* 본 원고는 OECD가 발간한 「Ownership and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Compendium of National Practices 2021」(이하 「2021 Compendium」) 및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가 「2021 Compendium」을 번역하여 발간한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송경호, 선혜경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연구원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이하 ‘공기업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이사회에 국가와 기업 양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해야 할 의무 부여를 권고한다. 그간 공기업 이사회는 규정준수 감독 기능을 넘어 성과 향상 및 기업 전략 수립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목격할 수 있다. 한국 또한 2022년 8월부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경제』 Vol.12에서는 2020년 OECD 조사를 바탕으로 공기업 이사회의 구성, 책임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주요국의 운영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1) 「2021 Compendium」 제4장 공기업 이사회는 공기업 이사회 운영방식에 관한 2020년 OECD 조사에 참여한 41개 국가의 자발적인 보고 내용과 이후 개별 국가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 이사회 구성

‘공기업 가이드라인’은 공기업 이사회가 객관적이며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이사회 구성 원칙이 투명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사회 구성 원칙에는 당연직 이사, 정부 출신 이사, 근로자 대표, 사외이사(independent director) 등 다양한 이사를 포함하는 규정이 담길 수 있다. 또한 공기업이 광범위하게 상업화되면서 이사회에 사외이사 및 전문성과 상업적 경험을 갖춘 인재 유치가 권장됨에 따라, 대부분 조사 대상 국가에서 다양한 경력의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이사회 규모는 기업 규모, 리스크 요소, 사업 성격 등 여러 요인에 영향받고 있으며 작게는 이사 3명부터 크게는 이사 20명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주요국의 이사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대규모 또는 상업적 공기업의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국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기업 지배구조 통합 규범(Combined Code on Corporate Governance)’에 따라 이사회 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며,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독일, 뉴질랜드에서도 이와 유사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둘째, 성별, 인종, 언어 등 다양성 장려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이나 권고를 채택하고 공기업 이사회에 다양한 요소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조사 대상 49개국 중 29%의 국가가 공기업 이사회에서 의무 여성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공기업 성평등규정을 통해 여성할당제 목표를 상장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인 40%로 설정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스라엘과 뉴질랜드는 공기업 이사회 구성 시 소수민족 대표성을 장려하는 지침이 있고, 스위스는 이사회 내 자국 언어별 사용 이사 비중(독일어 62.2%, 프랑스어 22.9%, 이탈리아어 8%, 로망슈어 0.5%)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다수의 조사 대상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대표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도입했다. 스웨덴의 경우, 직원 수를 기준으로 이사회 내 근로자 대표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직원 수 25명 이상이면 2명, 1천명 이상이면 3명의 근로자 대표 이사를 근로자가 직접 선임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 대표 이사 수는 전체 이사 수의 50%를 넘지 않으며 대체로 근로자들이 근로자 대표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브라질의 경우, 상장 공기업을 포함해 2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연방 공기업의 이사회는 적어도 한 명의 근로자 대표를 임명해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림 1] 주요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구성

국가	사외이사	정부 출신 이사	근로자 대표 이사	이사회 구성 관련 규정·권고사항
 브라질	○	○ (과반수)	○	법률 23.303의 제22조에 따라 이사회 25%를 사외이사로 구성
 독일	○ (거의 대부분)	○ (부처별 최대 2명)	○ (자발적) <sup>1)</sup>	독일 연방정부가 지정하는 감독이사회는 50% 여성할당제 적용. 또한 2022년 4월부터 연방정부 지분이 과반인 공기업의 감독이사회는 30% 여성할당제 적용
 이스라엘	- <sup>2)</sup>	○	○	공기업 대상 성별 다양성 목표 50%
 한국	○	X	○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 내 1명의 근로자 대표 이사 선임(2022년 8월 시행)
 뉴질랜드	○ (거의 대부분)	X	X	-
 스웨덴	○ (90%)	X <sup>3)</sup>	○ (2명/과반수 이내)	성별균등 대표제 (남/여 약 40%)
 스위스	○	○	-	공기업 대상 성별 다양성 목표 30%
 영국	○ (과반수)	○ (비상임 1명)	X	-

주: 1. 독일은 기업 유형, 근로자 수, 관련 제도 등에 따라 공기업 이사회 이사 수의 33~50% 이내에서 근로자 대표 이사를 자발적으로 임명함

2. 『2021 Compendium』에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

3. 스웨덴은 투자 이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정부 출신 이사 임명 가능

자료: KIPF,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 리스크 감독 관련 공기업 이사회회의 책임

공기업의 내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법적, 규제적 환경과 소유권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업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32개 조사 대상국 중 40%의 국가에서 공기업 이사회회의 책임사항으로 대규모 공기업의 리스크 관리 조치에 대한 감독을 위해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OECD 회원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상장 기업 중 절반 이상은 법률, 권고사항 또는 상장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무 규정을 적용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일정 규모 혹은 특정 법적 형태를 충족하는 공기업의 감사위원회나 리스크위원회에 리스크 감독 기

능을 주로 부여하고 있다.

조사 대상국 중 약 절반의 국가에서 공기업 이사회는 내부 리스크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감독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일부 국가는 이와 같은 의무를 「상법」에 명시해 공기업 을 포함한 모든 상업적 기업에 적용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경우, 상장 기업

[그림 2] 주요 국가별 리스크 식별·보고 체계

국가	리스크 식별 담당 부서	이사회 보고 담당 부서	이사회 보고 제출 주기
 브라질	감사/회계 부서	감사위원회, 내부 감사, 리스크/규정준수 전담 부서	-
 중국	경영진, 리스크위원회	경영진	연 단위 제출 (임의/필요시 제출)
 덴마크	경영진, 감사/회계 부서, 내부 고발	경영진, 감사	월별/분기별 제출
 핀란드	경영진, 감사, 리스크위원회	경영진, 감사, 리스크위원회	연 단위 제출 (필요시 제출)
 독일	감사/회계 부서	경영진, 감사	연 단위 제출
 이스라엘	감사/회계 부서, 리스크위원회, 리스크 전담 부서	감사/회계 부서, 리스크위원회, 리스크 전담 부서	연 단위 제출
 한국	경영진, 감사/회계 부서	감사	연 단위 제출
 라트비아	경영진, 감사	경영진, 감사	연 단위 제출
 네덜란드	감사/회계 부서	경영진	연 단위 제출
 노르웨이	경영진, 감사/회계 부서, 내부 고발	경영진, 감사	연 단위 제출 (필요시 제출)
 필리핀	리스크 전담 부서	리스크 전담 부서	연 단위 제출 (필요시 제출)
 스웨덴	경영진, 감사/회계 부서, 재무 및 리스크 관리 전담 부서	경영진, 감사위원회	최소 연 단위 제출
 스위스	-	규정준수/리스크 전담 부서	반기별 제출

주: 「2021 Compendium」에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  
 자료: KIPF,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지배구조 규범에 이를 명시해 공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방식은 국가 간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의 방식을 따른다. 대부분 감사·회계 부서, 리스크 특별위원회 또는 경영진이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영진 또는 특별위원회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연도별, 분기별 또는 필요에 따라 리스크를 검토한다.

독일, 이스라엘, 필리핀 등은 대규모 공기업에 한해 리스크 관리 책임자(risk officer)와 같은 리스크 관리 전담 직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브라질, 중국, 덴마크, 핀란드, 라트비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은 대규모 공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내부에 리스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사회 평가 현황

공기업 이사회에 대한 평가는 이사회 전반적인 기능 정립과 향후 후보자 선정 시 고려해야 하는 요건을 명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사회 평가는 이사회 의장과 소유권기관에 이사회 구성 변경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사회 평가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평가대상은 개별 이사 또는 이사회 전체가 될 수 있으며 이사회 의장, 자체 평가, 외부 전문가, 소유권기관 등 다양한 평가 주체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이사회 평가를 수행한다. 비상업적 성격의 공기업은 주로 소유권기관이 기관 설립 목적 관점에서 이사회 전체를 평가하는 하향식(top-down) 평가를 수행하는 반면, 더 상업적인 공기업은 자체 평가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의 공기업 이사회는 국가소유권 정책에 따라 매년 이사회 평가를 실시한다. 내부 평가가 일반적이지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 전체에 대한 외부 전문가 평가를 활용하기도 한다. 간혹 개별 이사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하지만,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이사회 의장은 평가 결과 중 이사회 임명 절차와 관련된 부분을 공유한다. 이스라엘은 공기업 이사에 대해 이사회 의장과 다른 이사회 구성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이사회 구성원 스스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칠레의 경우, 소유권기관이 모든 공기업 이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주관하지만, 실제 평가 업무는 기업지배구조센터에 대부분 위탁하고 있다. 폴란드는 공기업 이사회가 재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무부 산하 공기업의 감독이사회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문별로 부처 감독하에서 공공 정책 목표를 추구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보통 해당 주무 부처가 평가를 실시한다. 스위스는 개별 이사가 추가 교육을 받을 의사를 밝히고 정기적으로 이사회 기능을 검토(자체 평가)한 후 이사회 의장에게 평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3] 주요 국가별 공기업 이사회 평가체계

	 칠레	 이스라엘	 한국	 폴란드	 스웨덴	 스위스
소유권기관에 의한 하향식 평가 수행 여부	○ (연 단위)	-	○	○ (주기적)	○ (연 단위)	○
공식적인 평가 절차 수립 여부	○ (설문)	○	X	-	○	X
이사회 자체 평가 실시 여부(공식/비공식)	○ (공식)	○	○ (비공식)	X	○ (공식)	○ (비공식)
외부 전문가 평가 실시 여부	○	-	X	-	○ (정기적)	X
이사 임명 시 평가 결과 활용 여부	○	X	○ (비공식)	○ (비공식)	○ (비공식)	○ (비공식)

주: 「2021 Compendium」에 해당 국가의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로 표시  
 자료: KIPF,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에 제시된 정보를 활용

## 향후 과제

공기업 이사회 구성과 운영방식은 상이한 법률체계, 규제 또는 정책 요건과 공기업 소유권 행사방식과 같은 개별 국가의 특수한 제도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각 국가는 민간 영역에서 널리 통용되는 이사회 운영방식을 체계화해 공기업 이사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 공기업 이사회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속해서 강화해 오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사회의 성과 및 효율성 개선 문제와 함께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담보를 위한 법률·규제 체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여전히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 환경산업 해외 진출을 통해 협력국 환경문제 해결과 수출 증대 모색 -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는 최단기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웠던 고(故)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저서이자,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 대학을 다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아,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수출이 절대 선(善)이던 상황에서 나온 이야기였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전 부처가 산업부처가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이러한 국가적인 현실을 고려해 나온 이야기일 것이다.

한국전쟁이 휴전한 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 “이 나라가 재건되는 데 최소 백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암담했었다. 그렇게 암담했던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원조를 해주는 ‘공여국’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살아있는 경험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거의 유일무이한 나라가 됐다. 그리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글로벌 리스크 톱 10’에서 환경 영역이 절반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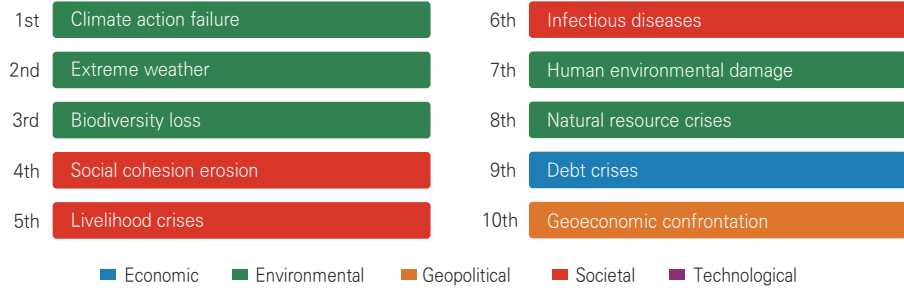
세계경제포럼(WEF)은 2006년부터 매년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발간한다. 2022년 1월 발표한 『2022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를 보면, ‘글로벌 리스크 톱 10’에서 환경 영역이 절반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1순위가 ‘기후변화 대응 실패’였고, 2순위 ‘기상이변(이상기후)’, 3순위 ‘생물다양성 감소’ 등이었다([그림 1] 참고).

더 안타까운 점은 기후변화 대응 실패에 따른 이상기후가 미래에 닥칠 것으로 예상한 과제 중 가장 빨리 현실로 닥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10년 뒤에는 상위 10개 위험 중 5개가 환경문제가 될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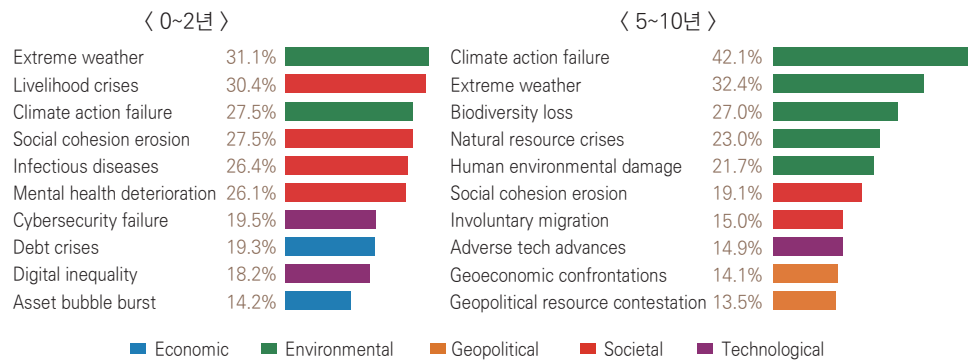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실장

[그림 1] 향후 10년간 지구적 차원에서 가장 심각한 위험 순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2022.

[그림 2] 시기별 증대한 위험 예측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Risks Report 2022*, 2022.

이에 전 세계는 과거 탄소집약적인 경제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고자 함께 달려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최근 전 세계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탄소중립 선언과 발맞춰 녹색 분야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EU는 유럽 그린딜 정책으로 7,500억유로 규모 회복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생에너지 분담금 지원 등이 포함된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바 있다.

### 환경산업은 코로나19로 성장세 둔화했으나 지속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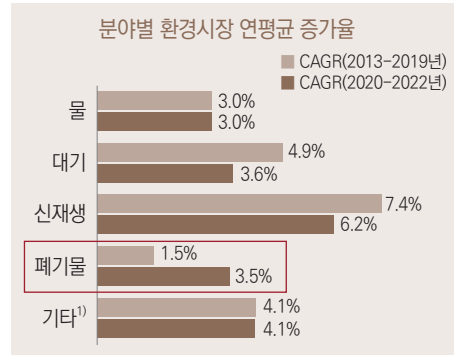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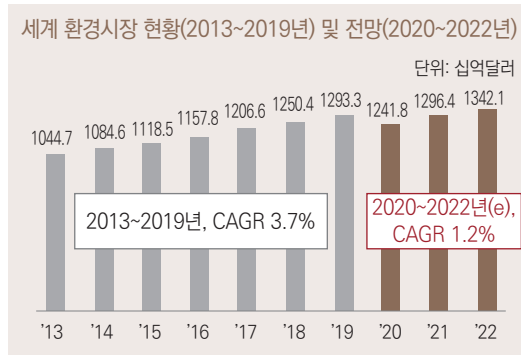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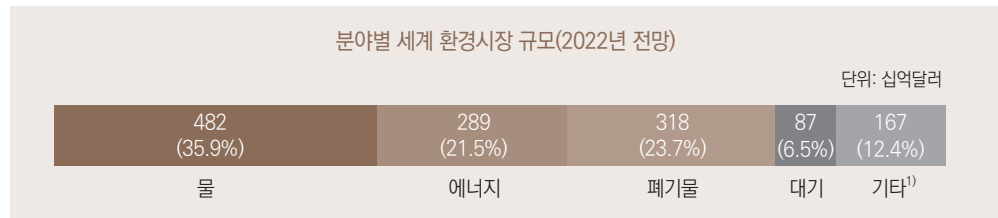
2022년 10월 기준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지지하는 등 최근 탄소중립이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로서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환경시장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에너지, 대기, 폐기물 분야의 시장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EBI) 자료에 따르면, 2013~2019년 환경산업의 연평균 성장률(CAGR, Compound Average Growth Rate)은 3.7%이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감소세였으나 2020~2022년에는 연평균 4% 수준으로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2020~2022년 연평균 성장률은 1.2%로 예상된다.)

글로벌 환경시장은 물, 폐기물, 에너지, 대기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매출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3~2019년 대비 큰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 매출은 폐기물 분야로 2.0%p 상승할 것으로, 물 분야는 3.0%로 과거와 유사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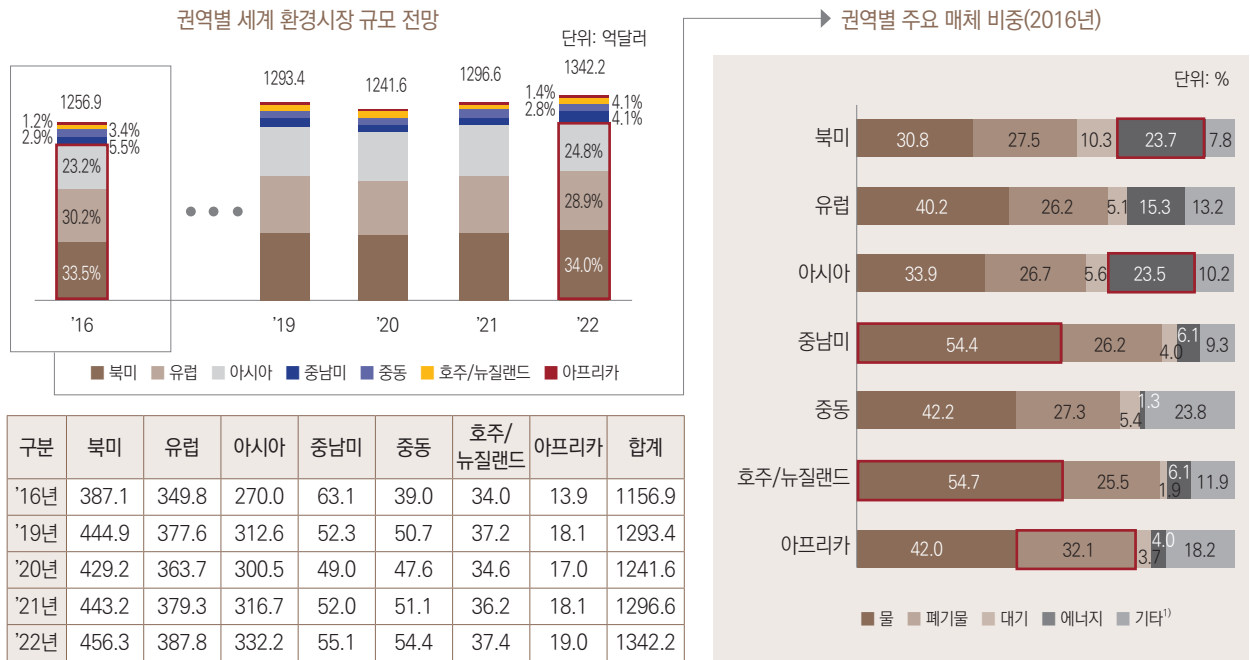
[그림 3] 글로벌 환경산업 규모



주: 1) 정화복원, 서비스, 기타 매출 포함  
자료: Global Markets Data(EBI, 2020)를 바탕으로 재편집

지역별 환경시장 규모를 대해 살펴보면, 2022년은 2016년에 비해 중남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시장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환경시장은 북미, 유럽, 아시아가 전체 환경시장의 8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유럽,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대비 0.6%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 권역별 환경시장 규모 및 매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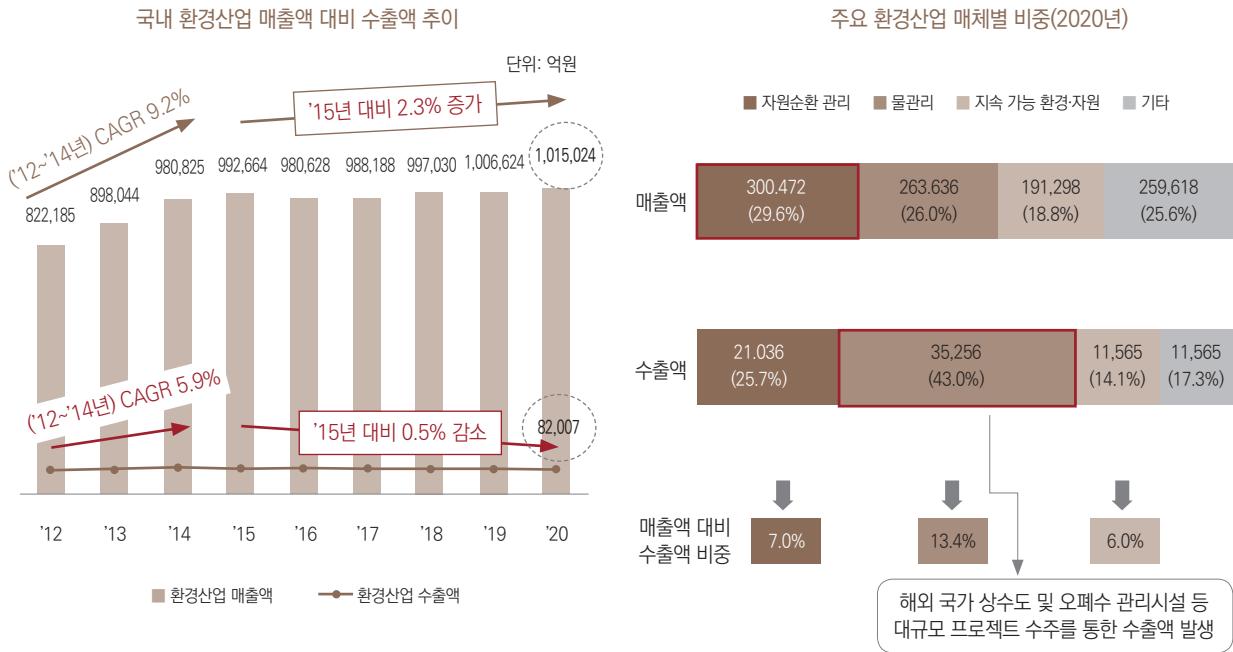
주: 1) 정화복원, 서비스, 기타 매체 포함  
 자료: Global Markets Data(EBI, 2020)를 바탕으로 재편집

권역별 · 매체별 비중을 살펴보면(2016년 기준), 중남미와 호주 · 뉴질랜드의 경우 물 분야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폐기물 분야는 아프리카(32%)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권역에서 약 25~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북미와 아시아에서 타 권역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환경산업의 매출액 대비 수출액 규모는 정체되어 있어 이에 대응할 적극적인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은 2012~2014년 연평균 9.2%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5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해 2020년은 2015년 대비 약 2.3% 증가하는데 머물러 있다. 환경산업의 수출 비중 또한 2012년에는 8.9%였으나 매년 조금씩 감소해 2020년에는 8.1%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환경산업 분야별 매출액 구성비는 자원순환 관리 29.6%, 물관리 26.0%, 대기관리 18.9%로, 이들이 전체 매출액의 약 7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물관리(43.0%), 자원순환 관리(25.7%), 지속 가능 환경 · 자원(14.1%) 순이다. 매출액 대비 수출액의 비중은 물관리(13%), 자원순환 관리(7%), 지속 가능 환경 · 자원(6%) 순이었다.

[그림 5] 국내 환경산업 매출액 대비 수출액 추이 및 매체별 비중



자료: 환경부, 「2020년 기준 환경산업 통계조사보고서」, 2021을 바탕으로 재편집

### 녹색산업 · 기술의 성장잠재력은 충분

그렇다면 우리의 녹색 분야 기술수준은 어떠한가?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녹색기술센터)에 따르면 기후기술 전체 분야의 최고 기술 보유국은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 대비 EU(96.0%), 일본(90.0%), 한국(80.0%), 중국(78.0%) 순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미국(0.0년) 대비 EU(0.5년), 일본(2.0년), 한국(3.0년), 중국(4.0년)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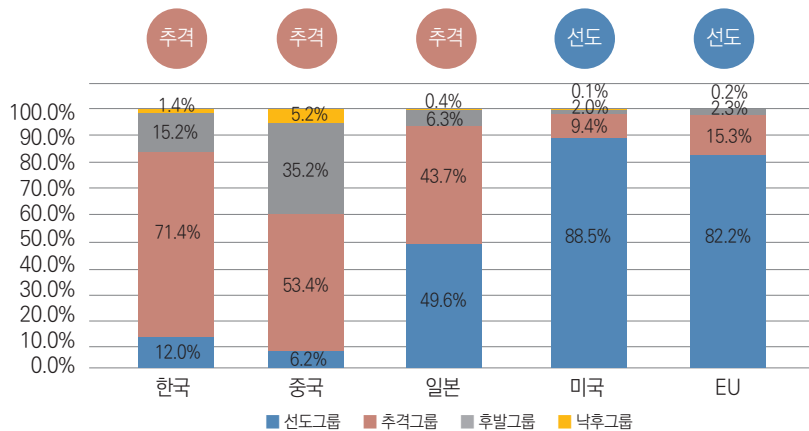
<표 1> 국가별 전체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
기술수준(%)	80.0	78.0	90.0	100.0	96.0
기술격차(년)	3.0	4.0	2.0	0.0	0.5

자료: 녹색기술센터,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 PART-I (총괄/감축 편)』, 2020, p. 26

보다 세부적으로 국가별 기술수준 그룹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리나라는 12.0%가 선도그룹에 해당하고, 71.4%는 추격그룹이었으며 후발그룹과 낙후 그룹은 각각 15.2%, 1.4%였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추격그룹에 해당한다. 미국, EU가 선도그룹으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추격그룹으로 분석됐다.

[그림 6] 국가별 기술수준 그룹



자료: 녹색기술센터, 『2020 기후기술 수준조사 PART- I (총괄/감축 편)』, 2020, p. 26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44개 기후기술 분야 중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난 상위 5개의 기술 분야는 감염질병 관리(1위), 가축질병 관리(2위), 전기지능화기기(3위), 태양광(4위), 연료전지(5위) 등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탄소중립·순환경제 추세에 발맞춘 관련 우리 녹색산업·기술의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을 기준으로 EU는 0.5년, 일본 2년, 한국 3년의 차이가 존재할 뿐이다. 작은 차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극복하지 못할 차이도 아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다양한 해외 진출 프로그램 운영 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의 환경문제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가의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환경협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먼저, 기반 조성 차원에서 유망한 해외 환경시장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유망 해외발주처 초청행사(Global Green Hub Korea), 개발도상국 환경공무원 석사과정 지원 등을 통해 해외 유망발주처를 확보하고 해외 협력채널 구축에 주력한다. 이외에도 국내 우수한 환경기술이 해외 진출 대상국의 환경규제 및 여건에 적합하도록 현지 실증을 지원하는 국제

공동 현지화 사업과 한국형 적정기술 보급을 통해 협력국가의 환경문제 해결 및 환경기업의 진출을 모색하는 환경 적정기술 보급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형성단계에서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DA)를 활용해 유망국 환경정책 개선 및 사업(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지원과 개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2년부터 환경부의 ODA 총괄기관으로서 환경 분야 프로젝트 ODA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데, 이는 ODA 자체의 의의도 있지만 국내기업 진출 테스트베드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주사업화 지원을 위해서는 현지 정부 협력회의 및 네트워킹 구축,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환경협력단 파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자원 조달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러한 기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협업해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연계,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 등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화 지원뿐만 아니라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 PPP)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2022년 '환경산업 해외진출지원기업 실무협의체'를 출범하고 대중소 상생분과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매칭을 통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경산업 해외 진출 통해 '수출'과 '협력국 환경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는 냉혹한 경제현실에 시달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래된 에너지 문제, 팬데믹 기간 막대한 자금 지원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 경제의 기반이 뒤틀리고 있다.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기후위기는 더욱 심각하다. 2022년 여름 전 세계를 강타한 이상기후 현상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통해 타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환경오염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험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의 경험을 협력국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다. 우리도 전통적인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핵심 녹색산업 육성 및 수출을 통해 새로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녹색성장 중심 국가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 당신도 긴급차량입니까?



신속배달 보다 안전배달  
곡예운전 보다 안전운전

안전한 교통의식으로 올바른 배달문화를 정착시켜주세요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01

한국전력공사

# 에너지 신산업 혁신 생태계의 중심, 에너지밸리



최재연

한국전력공사 상생발전처 에너지밸리추진실 차장

한국전력은 지난 2014년 본사 나주 이전 시점부터 광주·전남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에너지밸리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에너지밸리란 에너지 기업과 연구·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이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구현되는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로, 최종적으로는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 허브(Global Smart Energy Hub)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첨단 IT기

업 성장의 요람이 됐듯 에너지 특화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해 한전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유관기관, 학계와 기업이 공동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력과 에너지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주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에너지밸리 공간 범위와 주요 산업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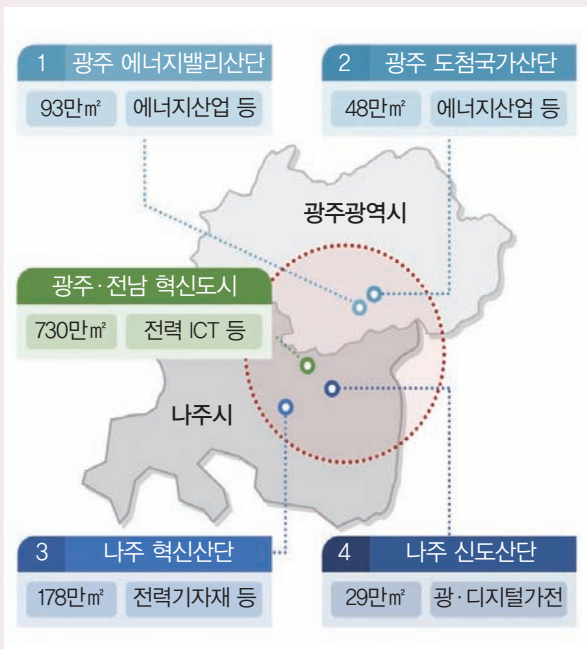


그림 2 에너지밸리 비전



**에너지 신산업 중심으로 582개 기업협약, 2조 7,907억원 투자 유치로 1만 2,908명 고용창출 효과**

한국전력은 2015년 3월 에너지밸리 1호 기업 유치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현재까지 582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마쳤으며 투자 유치 금액은 2조 7,907억원 규모이다. 이 중 7,208억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 314개 기업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밸리에 자리 잡고 있다. 초기에는 주로 한전에 납품하는 전력기자재 생산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협약 체결과 지역 이전이 이뤄졌으나, 이후 전력 ICT를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업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현재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전체 투자협약 기업 중 77%(451개 사)를 점유하고 있다. 그 결과 에너지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기업이 집적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2,908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전은 에너지밸리 조성 초기부터 투자펀드 조성, 저금리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과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 R&D 지원, 지역제한경쟁을 통한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정착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최초 설정한 에너지밸리의 로드맵 목표인 500개 사 기업 유치를 초과 달성했으며, 앞서 언급한 투자 유치 성과 또한 거둘 수 있었다. 한전은 이런 양적 성장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뛰어넘는 질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2030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본격 추진하고 있다.

**지속·동반성장 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 중심으로 거듭나는 에너지밸리**

에너지밸리는 2단계 질적 성장을 통해 에너지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에너지밸리를 포함한 광주·전남지역은 잠재적으로 신재생 자원이 풍부하고 한전의 기술 정책을 실제로 구현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 이런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한전은 에너지밸리를 지역 특화 공동 R&D를 수행하는 혁신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혁신기업 그



리고 전력산업의 협·단체, 기관들과 연대·협력해 이 지역을 에너지 혁신의 기술 개발 메카로 키워내고자 한다. 특히 2021년 11월에 준공한 한전 에너지신기술연구원에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유지 보수(O&M), 중주기·장주기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직류배전망, 수소 에너지의 생산과 저장·활용, 전력반도체 등과 함께 중점 과제에 대한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KENTECH를 비롯한 우수 대학과 공동으로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전라남도의 역점 사업인 해상풍력, 태양광 사업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구원 내 기업협력 시험동을 상시 개방해 전국의 에너지 혁신기업들의 기술 개발과 실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과 신기술 글로벌 허브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에너지밸리**

에너지밸리는 에너지 신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한전은 에너지밸리가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에너지산업을 견인할 혁신적인 기업 배출 등 많은 성공사례가 풍부하게 만들어지도록 하는 한편,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밸리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이자 세계적인 에너지 혁신, 에너지 기술의 메카로 성장해나가기를 기대한다.○

## 02

한국도로공사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김천



김현신  
한국도로공사 사업개발처 차장

경북 김천은 국토 정중앙에 있으며 국토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우리나라 화물의 약 80%는 도로를 통해 운송되고, 이 중 고속도로는 도로 화물수송의 64%, 전체 화물수송의 약 50%를 차지한다. 2014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성남 판교를 떠나 김천에 입성했다. 도공은 김천 시대를 맞이한 지 6년이 된 2020년쯤, 고속도로와 김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경북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했다.

### 교통 + 입지, 물류사업의 최적지 김천

우리나라는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가 급격히 증가 중인 반면, 생활물류 인프라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자금 조달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은 자체 물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물류시설을 중소기업이 보유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지역 간 이동하는 화물 취급을 위해서는 물류시설의 구축 위치와 교통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김천은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품고 있다. 이에 도공은 김천에 최첨단 물류시설을 구축해 김천에 조성된 경북 혁신도시 발전에 이바지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김천) 육성 사업'을 추진했다.

### 경상북도 · 김천시 · 한국도로공사 협업을 통한

#### 성공적 사업 추진 기틀 마련

도공이 김천에 스마트 물류사업 추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던 중,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도공은 김천을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2020년 7월, 관계부처 합동)'에 반영되어 정부 지원을 받아 경상북도 · 김천시와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0년 11월 경상북도 · 김천시 · 도공이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하면서 경상북도는 인허가와 사업비 지원을, 김천시는 사업부지 제공을, 도공은 사업총괄과 사업 재원 마련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 육성사업 본격 추진과 장애 극복

이 사업은 경북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 물류시설 부족을 해결하며, 관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천시가 제공하는 사업부지는 11,250㎡(55억원 상당)로 김천1 일반산업단지 안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약 179억원이다(정부 46.5억원, 경상북도 10억원, 도공 122.3억원). 물류시설은 2층 규모로 연면적은 6,014㎡이다.

1층은 물류센터로, 2층은 첨단 물류기술을 개발 · 검증하기

**그림 1**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조감도



위한 테스트베드로 구축한다. 물류센터는 물류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물류시설 운영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테스트베드는 선진국과의 물류기술 격차를 극복하고 기술 국산화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물류기술 개발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도공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 건축공사 설계 착수와 동시에 물류센터 운영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류기업이 수도권을 선호하는 탓에 운영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 이에 도공은 김천의 지리적 장점과 함께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물류시설 임대료 할인(대구·경북 시세의 50%) 조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수도권에 있는 물류시설 운영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다.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착공과 향후 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많이 증가해 사업비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8월 마침내 물류시설 건축공사를 시작했다.

건축공사는 2023년 8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준공 후 2달간 물류설비 공사를 완료할 2023년 11월부터 물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물류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에 참여할 기업은 2023년 5월 선정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에 사무공간과 테스트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2층 테스트베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1층 물류센터에 적용, 물류기술을 국산화하고 상용화를 지원해 기술 개발 중소기업 성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김천에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천은 도공의 스마트 물류사업의 시발점이다. 향후 도공은 김천을 시작으로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류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림 2**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공사 현장



## 03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복지용구에 대한 급여적정성 연구,  
전시체험관 운영을 통한 체험 기회 확대

강순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추진단 설립추진부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신(新)노인의 욕구수준 증가, 돌봄 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 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지난 11월 1일 설립했다.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 45억원을 지

원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교통부, 강원도가 함께 참여했다.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는 강원 혁신도시(원주시) 안에 있으며, 총 650평 규모로 2층과 3층은 전시체험관, 4층은 시험검사·사용성평가실, 5층은 사무공간과 교육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전시체험관 운영으로 수요자 선택권 강화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2·3층의 전시관과 체험관은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을 전시·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 수요자의 올바른 선택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 연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을 도모한다.

2층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용품 280여 종, 장애인보조기기 30여 종,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대상자 신체 중증도에 따라 구분해 제품 정보는 물론, 자신의 신체 상태와 생활 환경에 적합한 제품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3층 체험관은 AI와 IoT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거주환경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모든 연령대가 만족하는 체험관이 되도록 조성했다.

그림 1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전경



그림 2 2·3층 전시체험관 내부



실증연구와 연계해 급여제품 등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증연구로 급여적정성 확보**

4층 시험검사·사용성평가실은 연구센터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해 급여적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복지용구 제품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제품의 급여적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성 실증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 기능별 표준급여 개발 지원체계를 마련하며 고령친화용품 표준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용효과성 검증을 통해 합리적 표준원가 산정 기준 및 제품의 적정가격 결정을 지원하는 등 고령친화 실증연구 수행 전문연구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과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

우리나라는 조만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요양시설이 아닌 본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의 증가로 인해, 복지용구를 포함한 고령친화용품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전시체험관 운영을

그림 3 4층 사용성평가실



통해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제품까지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 연구를 수행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 실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는 ‘더 나은 복지용구의 기준! 더 명확한 투명성의 기준! 더 건강한 삶의 기준!’을 찾기 위해 먼저 생각하고 함께 소통해 가속화되는 고령사회의 올바른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04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우수사례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

지역사회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와  
차세대 디지털 인재 양성

이영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수석



## 사업의 태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ICT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특히 2015년 충북 혁신도시로 기관 이전 후 지역사회 디지털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지역 구성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노력의 결실로 2020년 충북 혁신도시 대표 브랜드사업으로 평가받은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이 탄생했다.

## 사업 경과

충북 혁신도시는 배후도시의 부재로 정주여건이 부족해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NIPA는 2020년 7월,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과 ICT 기반의 인재 양성을 위한 'K-스마트교육 사업'을 기획해 정부에 제안했고, 그 결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선도 10대 협업과제'로 선정, 같은 해 12월에는 국토교통부 심사에서 전국 1위로 평가되어 47.55억원의 국비 예산을 지원 받았다.

표 1 K-스마트교육 시범도시 구축사업 2대 분야와 6개 전략사업

언택트 교육 특화	5G 실감 교육콘텐츠 확산
<p><b>전략 1</b> 인공지능(AI) 영재학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AI) 교육 중점 다양한 ICT 교육 운영</li> </ul>	<p><b>전략 5</b> 5G 실감 콘텐츠 발굴·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밀착형 공공기관 대민서비스 및 주민(일반인, 청소년 등) 체험형 콘텐츠 등</li> </ul>
<p><b>전략 2</b> 아이티 스카우트(IT Scou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첨단 에듀테크를 활용한 차세대 글로벌 IT 리더 육성</li> </ul>	
<p><b>전략 3</b> 베헤럴클래스 어학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어민 화상교육, 타운홀미팅(직접 소통) 등</li> </ul>	<p><b>전략 6</b> K-실감 학습터 구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G미디어 공간 구축 및 체험교육 콘텐츠 개발 등 디지털 문화 확산</li> </ul>
<p><b>전략 4</b> 창의미래교육센터 교육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CT 창의융합 체험교육 개발, 교육환경 개선 등</li> </ul>	

**사업 내용과 주요 성과**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업으로 생동하는 혁신도시 구축을 견인한다’는 연계사업 취지에 맞게 ‘K-스마트교육 사업’에 이전기관, 지자체, 지역·전문기관 등 총 8개 기관이 참여해 다양한 협업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전략사업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 AI 영재학급**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갈 AI·SW 미래 인재 육성사업으로, KAIST 대학생 및 멘토 강사가 참여하는 ‘인공지능 스토리텔링(AI + ST)’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생들의 흥미, 몰입도와 AI 활용 역량을 제고(초·중·고 31개교, 1,569명 참여)

**[2] IT스카우트** AI·SW에 관심과 역량을 보유한 청소년을 조기 발굴해 ‘글로벌 IT 리더’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기 IT스카우트단을 선발(160명)해 창단식을 개최(2021년 10월)하고 메타버스, AI 등 ICT 신기술 체험·교육을 지속 추진

**[3] 버추얼클래스** 지역주민(학생 등)의 외국어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화상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원어민 강사와의 1:1 수업을 지원해 영어회화 수업의 흥미를 높이고 학습동기 유발(2021년 10월~2022년 2월, 약 3천명 수강, 평균출석률 91.3%)

**[4] 창의미래교육센터 고도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NIPA에 ‘디지털스쿨’을 개소(2022년 7월)하고, 지역주민에게 ICT 신기술 체험 기회 제공(2022년 10월 말 기준 약 800여 명 참여)

**[5~6] 5G 실감 콘텐츠 발굴 및 K-실감 학습터 구축·운영** 공공기관 수요처 맞춤형 실감 콘텐츠를 개발(2021년 12월)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2022년 4월)해 지역주민과 (예비)창업가들에게 실감 콘텐츠 보급 확산을 지원

**향후 계획**

‘K-스마트교육 사업’은 혁신도시 성장·발전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지난 2년간 지역사회가 합심해 ‘교육-고용-성장(재투자)’의 선순환적 지역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AI 영재학급과 IT스카우트단 운영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맥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광역화 시행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 NIPA는 그간의 ‘K-스마트교육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전략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그림 1** IT스카우트 창단(2021년 10월)



**그림 2** NIPA 디지털스쿨 개소(2022년 7월)





# 공공기관 TALK

〈공공기관 TALK〉는 공공기관 현장의 소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기관장의 경영철학과 기관의 역할에 대해 들어보는 ‘CEO인터뷰’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말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한다. ‘혁신도시 박람회’에서는 2014년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역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직원들의 미니인터뷰를 통해 근무·생활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 ‘잡(JOB)담’에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소개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를 만나본다. 마지막으로 ‘나의 취업성공기’에서는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장애인채용 부문’ 당선작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이 독자분들에게 흥미롭게 전달되기를 기대한다.

## CEO인터뷰

축산물품질평가원 / 한국저작권보호원

## 혁신도시 박람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잡(JOB)담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나의 취업성공기

서민금융진흥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생산·유통·소비 데이터를 연계한 축산 유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 학력

성균관대 행정학 학사  
베이징대 경영대학원 석사  
단국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수료

### 주요 경력

2022~현재 축산물품질평가원  
제12대 원장  
2021~2022 농촌진흥청장  
2021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2019~202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201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주세요.**

『공공경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 박병홍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은 「축산법」 제36조에 따라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원활을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1989년 등급판정 사업 수입 이후 축평원은 오랜 기간 등급제도를 통해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쇠고기의 경우 1등급 이상의 고급육 생산량이 2003년 15.3%에서 2021년 74.9%로 증가했고, 돼지고기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3년 16.6%에서 2021년 33.9%로 증가하는 등 품질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한편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2008년 쇠고기를 시작으로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축산물의 이력을 추적·관리할 수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도입했고, 지금은 총 5개 축종의 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력제가 시행되면서 문제 발생 시 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안전성이 강화되었으며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축산물 가격의 투명성 확보, 축산유통 정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축평원의 사업은 축산물 유통조사까지 아우르게 됐습니다. 지금은 축산물 유통비용, 가격조사 업무와 함께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축평원이 발표하는 5개 품목(소·돼지·닭·계란·우유)의 소비자가격은 축산물 소매 단계 대표가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난 8월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이후 기관을 어떻게 운영해나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축평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고민하면서 취임식 때 직원에게 당부했던 내용이 ‘선제적 위기대응’, ‘문제 의식’, ‘공직윤리’, ‘이해와 존중’입니다. 이때 당부사항은 새롭게 설정한 축평원의 핵심가치, 행동규범과도 연계되는데요, 바로 ‘안전, 실용, 혁신, 공정, 상생’입니다. 저는 이 5가지 핵심가치를 크게 ‘업무 혁신’과 ‘조직문화 혁신’으로 분류해 기관 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혁신에 포함되는 첫 번째 가치는 ‘실용’인데, 업무 방향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검토해 국민을 이롭게 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혁신’은 문제의식을 갖고 개선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며 실용의 관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용 관점의 작은 변화가 혁신에 이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문화 혁신에는 세 가지 핵



**일자**

2022년 11월 30일(수)

**장소**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세종)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전국적인 조직망과  
관계자 네트워크,  
각종 축산 데이터와  
시스템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고자 노력



심가치가 해당하는데, 첫째 ‘안전’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 직원의 안전과 더불어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사건·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자 합니다. 둘째, ‘공정’은 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상생’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소통해나갈 것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도 등급판정 방식 등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업무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신가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를 겪으며 디지털 혁신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축평원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사업 전반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각종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등 업무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물 등급판정의 경우 30여 년간 사람이 해왔지만, 최근에는 AI나 영상기술을 활용해 쇠고기 등심 단면적을 측정하고 돼지 정육량을 분석하는 등의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직접 경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평원은 등급판정, 이력관리, 유통정보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단순히 수집·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데이터를 연계해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 기관 등 5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방역 상황을 확인하고 농장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이나, 품질·이력 데이터를 통해 한우 농가의 유형을 분류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KAPE-TI 모델이 데이터 활용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민간을 지원하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할도 중요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축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종사자 육성·지원 기반이 부족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소 농가 중 45.4%는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며, 영세농도 많아 새로운 기술의 접목이 쉽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축평원은 축산업 전·후방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국적인 조직망과 관계자 네트워크, 양질의 축산 데이터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각종 축산 데이터와 시스템을 민간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의 경우 품질을 높이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출하 시기 결정이 중요합니다. 이에 농가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양·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8개 도매시장의 경매·응찰 데이터를 분석해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품질정보 피드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관계자에게는 거래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각종 서류를 통합·간소화하는 축산물원패스도 도입했습니다. 축산 분야 민간 사업자와도 활발히 협업 중입니다. 최근에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축산 분야 민간기업을 지원하는 협업체를 구축했으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시장의 의견수렴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K-테스트베드 플랫폼'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2022년은 한우 암소의 번식 형질 유전능력 평가 기술 등의 주제로 4개 기업과 협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소개해주세요.**

최근 축산정보 활용, 민간기업 지원, 적극 행정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혁신 중 하나로 말씀드린 데이터 연계·활용 부문이 두드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한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고, 축산물 이력 정보를 활용한 분석 시스템인 데이터 랩 서비스로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 표창과 함께 통계청의 국가통계 보급·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해 축산물 유통거래의 편의성을 크게 증대시킨 축산물원패스가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축산물원패스는 거래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모바일 앱을 통해 하나의 통합증명서로 대체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와 효율을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매년 2억 1천만 건의 서류를 인쇄·보관·관리하는 데 소요됐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성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도 중요한데, 원장님께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간 코로나19로 직원 간 교류가 축소됐던 만큼 '안전, 공정, 상생'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관의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의 개념을  
업무 관련 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강조





축산유통이라는 목표를 두고 각 사업을 연계해 가축,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축산 유통체계 조성



다. 그중 제가 가장 역설했던 부분은 안전이었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축평원이 축산물 품질평가, 이력관리와 같이 국민 먹거리 안전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직원 대부분이 외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저는 이러한 안전의 개념을 물리적·환경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의 개념으로까지 확장해 직원들에게 강조해왔습니다. 취임 이후 지원을 방문하면서 근무지의 안전 환경을 점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찾아 317건을 발굴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축평원은 다양한 관계자와 연결된 만큼 규정과 절차, 윤리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임직원 모두가 공정의 자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준법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하는 문화를 만들고자 소통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소통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26개 토론과제를 선정하였고, 매주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현장경영을 통해 직접 업무도 체험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고, 간담회, 직원조회를 여는 등 상생문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과학기술 발달로 데이터 기반의 농업이 발전하고 식품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정보, 지속가능한 축산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가격안정, 유통비용 절감 등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축평원의 역할과 방향을 넓은 의미의 축산유통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축평원의 사업은 축산물 품질평가에서 시작해 이력관리, 유통정보조사로 점차 확대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축산유통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두고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축산물뿐만 아니라 가축,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축산유통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축산유통의 발전을 통해 국민 행복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축산의 미래를 선도하는 축산유통 전문기관으로서 차별화된 위상을 다지고자 합니다. 또한 축산유통 데이터의 중심기관으로서 AI, ICT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 가치를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품질·이력·가격정보와 축산 관련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데이터 전담부서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축산유통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평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축산민원 통합창구 축산물 원패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만나보세요!



**축산유통관계자**

지금

축산물 유통 서류를 한번에 발급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  
정말 편리합니다!



축산물 원패스 앱을 편리하게 다운받는 방법  
QR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축산물 품질·인증정보를 한 곳에!**

축산물 품질·인증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간편한 통합조회 서비스



**축산물 유통서류 발급을 한번에!**

각종 품질·인증 서류는 그만,  
모바일 통합증명서 하나로!



**축산물품질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Animal Products Quality Evaluation



# 신속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로 대한민국의 문화를 지키겠습니다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 학력

서울대 철학과 학사  
미국 듀크대 정책학 석사

## 주요 경력

2022~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202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2020~2021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원장  
2017~20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장  
2016~2017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  
2014~2015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2009~2011 주 뉴욕총영사관  
문화홍보관  
2008~2009 주 미국대사관 문화원 원장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어떤 기관인지 소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박정렬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이 ‘저작권’은 어렵고 복잡하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데요. 저작권은 아주 자연스럽게 중요한 권리이며 반드시 존중하고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우리는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에 본능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고전주의 화가들도 그림 하단에 서명을 남겼고, 클래식 거장들도 작곡한 악보 앞에 자신의 이름과 곡을 헌정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나란히 썼습니다. 아주 오래 전, 관련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또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인류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온 것이지요. 하나의 창작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의 재능과 헌신을 쉽게 복제하고 소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파장을 가져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와 문명이 설 수 있는 기반을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식과 기술, 콘텐츠 기반의 현대사회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에 관한 정부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집행하기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주요 업무는 크게 ‘저작권 침해 대응’과 ‘사전 침해 예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침해 대응 업무부터 설명 드리면, 국내외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불법 저작물을 적발, 저작권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조치하고, 오프라인상의 불법 복제물을 수거해 폐기하고 있습니다. 첨단 포렌식 증거분석 기술을 활용해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도 침해 대응에 해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전 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 기술 연구, 국제 저작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전문기관이자 중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2022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보호원을 어떻게 경영하실지 포부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문화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K-콘텐츠의 연간 수출액이 136억달러를 돌파하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세계 무대에서 큰 상을 수상하는 일이 일상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부심과 감동을 느끼겠지만, 오랫동안 정부에서 세계일류 문화매력 국가를 꿈꾸며 일해 온 저에게는 무척 각별한 기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전성기를 지키기 위해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자**

2022년 12월 7일(수)

**장소**

한국저작권보호원 본원  
(서울시 마포)

**대담**

KIPF 공공기관연구센터  
라영재 소장



효과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모니터링-심의-통계-대국민 정보 제공-업무포털-사업 지원’의 과정을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중



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의 울타리를 해외로 크게 확장하려고 합니다. 우리 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불법 복제물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침해 대응 신속화와 저작권 보호 집행력 확보, 한류 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목표는 ‘소통’입니다. 보호원 각 부처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이고, 나아가 유관기관, 권리자, 콘텐츠 산업계, 국민 여러분과 양방향으로, 수시로 소통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파격적인 지원이라도 필요 당사자가 모르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작물을 향유하는 양태도 많이 달라졌고, 그로 인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유형도 다변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보호원의 전략이 궁금합니다.**

보호원 설립 초기에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발맞춰 적기에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도 너무 빠르고 콘텐츠 장르별 주 향유층과 저작권 침해 양태 역시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원은 현재 신속하고 체계적인 종합대응시스템을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심의-통계-대국민 정보 제공-업무포털-사업 지원’의 업무 과정을 하나의 통합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저작권 보호 활동의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침해 유형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한 축입니다. 종합대응시스템의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보호원뿐 아니라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의 기관과 공동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보와 데이터를 시스템으로 즉각 공유해 기관을 초월한 강력한 저작권 보호 기반을 형성해나가는 것이지요. 종합대응시스템은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 중인데 새해에는 빅데이터 기반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의 침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도 중요할 텐데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 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보호원 사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리한 사람은 함정에서 잘 빠져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는 격언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도 중요하지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가 다변화되고, 사적 영역으로 은둔화되는 경향이 매우 빠르고 강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물을 일일이 찾아서 대응하기보다 이용자의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해 스스로 저작권 보호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호원은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권리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리자와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권리자가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기술(워터마킹, 포렌식 마킹, DRM, 필터링 등)을 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하는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 사업’도 확대해 운영할 방침입니다.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 영상이나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기도 하고, 저작권 보호 정보지인 『C STORY』 등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안내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K-콘텐츠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저작권 침해 역시 더 넓은 지역에서,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단순히 웹툰, 영화 등 주요 침해 장르와 특정 인기 작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수많은 작품이 중점 보호 대상이 됐고, 주요 항유 국가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가 됐습니다. 우리의 저작권 보호망도 더 넓고 촘촘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해외에서 보호 활동을 하는 전문 인력이 파견되면 좋겠습니다. 해외의 저작권 보호 거점이 있다면 신속한 침해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류 열풍의 진원지였던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곳의 사무소만으로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 피해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입니다. 미주와 남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어떤 방식이든지 저작권 전문인력이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기관들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둘째로, 나라별 현지 언어로 불법 유통되는 우리 콘텐츠의 침해 정보를 신속히 수집해 대응하기 위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스페인어 등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일련의 대응 과정을 설명 드리면,

“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전문인력 파견과 ‘언어별 저작권 침해 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등 노력 ”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화’, ‘K-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강화’, ‘K 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 중점 추진과제 달성 위해 최선 다할 것



① 보호원과 해외사무소에 다국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고, ② 불법 사이트의 24시간 모니터링 수집 결과를 활용해 ③ 현지에서 경고장을 발송하며, ④ 현지 집행기관과 공동 대응해 ⑤ 신속한 피해 구제(불법 URL 삭제, 접속 차단, 사이트 폐쇄 등)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기존 보호원 기능의 강화와 확대입니다. 보호원은 해외 현지에서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주요 저작권 침해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한 바 있고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수사 정보 공유, 인력 교류뿐 아니라, 해외 협력을 통한 공동의 저작권 인식 제고 사업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교육과 홍보가 국가 간 저작권 인식 차 좁히기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해 저작권 관련 화두는 어떤 것이 될까요? 새해를 맞는 소감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하고픈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I 창작물의 저작권 이슈가 세계적인 화두 아닐까요? 입력된 데이터를 통해 기계적인 학습을 한 AI가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작품이 실제 대회에서 수상하는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SF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을 뉴스 기사로 읽게 되면서 예술가뿐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혼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은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인간다운 것이니까요. 현재 우리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만을 저작권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창작 사례가 급증하고 관련 분쟁도 계속되고 있어 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해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계묘년 새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신속화’, ‘K-콘텐츠 해외 침해 대응 강화’, ‘K-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라는 중점 추진과제를 달성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시간은 흐르고 우리 개개인도 흘러갑니다. 하지만 문화는 남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아름다운 문화를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콘텐츠의 인기에 더해 창작물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으로도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실천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저작권 보호 선진국이 되지 못하리란 법도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저작권 보호의식 수준이 문화 융성, 국격과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일상 속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 매력 국가를 이끄는 글로벌 저작권 © 보호 리더

**튼튼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창작자의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망을 구축하고,  
침해 취약분야의 저작권 인식 제고를 도모하여 올바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 울산 혁신도시,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람들을 만나다 —

울산 혁신도시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 첨단 에너지산업의 메카를 지향하며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심도시를 목표로 조성한 계획도시이다. 석유산업과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인만큼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면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고용훈련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여건을 확충하며, 산업안전과 재해방지를 위한 연구기능을 고려했다. 이번 호는 2014년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람들을 만나본다.

## 글로벌 에너지산업의 허브로 성장하는 울산

2018년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울산 혁신도시는 침체된 조선해양 플랜트산업의 신사업 영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선해양 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산업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울산미포국가산단과 온산국가산단 내 에너지 다소비형 기업에 매년 에너지저장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ESS)을 구축해 에너지 보급을 안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중립 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동북아 오일가스 허브 구축과 북항 배후단지 내 수소복합단지를 조성해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 거듭난다는 구상이다. 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비·기술을 지역기업, 대학과 공유하고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울산 혁신도시에는 에너지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전력/석유자원 개발, 연구 기능 간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해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기관(에너지)이 이전했다.

또한, 지역 산업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개 기관(노동복지)이 이전했다.

이와 더불어, 울산광역시시는 반경 30km 인근 고리, 월성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원전 단지가 있으며, 울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있어 지진, 원전, 산업과 관련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재난과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노동복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2개 기관(기타)이 이전했다.

### Mini Interview

#### 공업도시 No, 친환경 생태도시 Yes! 울산에 반하다



강영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원 이러닝교육부 부장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에 일조하고자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안전의식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수요도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저와 부서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울산 혁신도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울산의 젖줄인 태화강을 중심으로 조성한 태화강 국가정원을 가장 좋아합니다. 약 4km 구간에 걸쳐 조성된 심리대숲 정원과 20개 이상의 테마정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댓잎의 속삭임을 들으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정신까지 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울산에 오시면 꼭 방문해서 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 내 후임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안전보건공단(KOSHA)에 입사를 꿈꾸며 취업을 준비하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KOSHA인은 무엇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소명의식을 반드시 지녀야 합니다. 또한 우리 공단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전보건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임이라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부단히 쌓아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미래 계획은?

퇴직 후 울산에 정착할 계획입니다. 공단에서 습득한 안전보건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같은 작은 노력이 모이면 울산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된 도시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전 울산’을 위한 인생 이모작에 같이 한 번 동행해 보시겠습니까?



## Mini Interview

## 울산과 함께하는 안전한 삶

나현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콘텐츠개발부 과장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입사 9년 차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에서 근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첫 직장인 공단에 입사한 이래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 및 교육 등 다양한 안전 관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는 '안전보건 VR 콘텐츠'를 만들고, 사업장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이전 전과 후의 생활환경을 비교한다면?

울산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교통이 혼잡한 안산에 살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고 나서부터는 복잡한 교통과 많은 사람에 의해 낭비하는 시간 없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주말 개인 시간을 봤을 때 바다든 산이든 원하는 장소를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특성상 문화시설, 편의시설 모두 가까운 곳에 있고, 수도권만큼 사람이 몰리지 않아 '여유로운 시간 소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 지방 이전 전과 후의 근무 경험을 비교한다면?

혁신도시 근무 전에는 일선 지사에서 근무했는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울산 혁신도시 공단 본부에 오게 되면서 안전과 관련된 법, 정책 등을 만들어 현장이 스스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보이는 곳'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울산 혁신도시 근무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 혁신도시에서 당신의 미래는?

울산 혁신도시에서의 삶은 제게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울산에 처음 발을 디고 설렘과 두려움에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후 '결혼', '새로운 업무'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좋은 느낌으로 가득합니다. '과거'를 떠올려보니, 혁신도시의 '미래'도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미래에도 순간마다 '설렘'과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좋은 기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이 함께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약칭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누리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사업장 안전과 근로자 건강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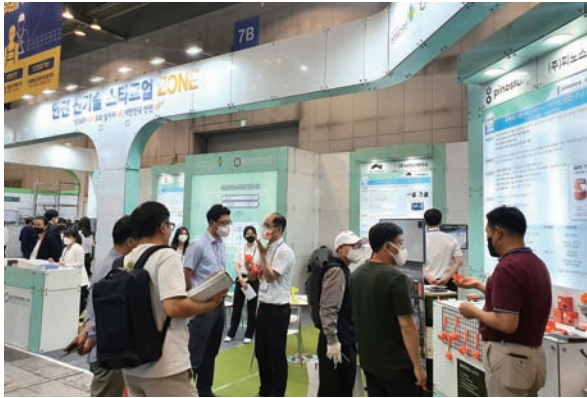
공단은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핵심 고위험 사업장·설비를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근본 원인을 찾고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재해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추락, 제조업 끼임 등 위험요인을 상시 점검하는 현장점검 사업, 질식재해 예방 현장지원, 조선업 안전보건 기술지도, 사고감시대응(산재 모니터링), 중대사고 정밀조사 지원, 화학설비 안전관리 등이 있다.

또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건설 현장,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용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며 근로자 건강센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산하기관으로 연구원, 교육원, 인증원 등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며 산재 예방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역량을 높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산재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산업안전 및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직업건강, 환경,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을 연구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직무, 전문화, 이러닝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검사 등을 통해 근원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제조·유통·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매년 7월 첫째 주에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방송·출판·옥외광고·온라인 등 대국민 안전메시지 전달을 통한 안전문화 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기구·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외 우수 안전보건 정보도 발굴·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공단 미래전문기술원은 미래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2022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안전 신기술 스타트업존(사진출처: 필자)



오픈스쿨 안전보건 사고예방 가상현실(VR) 체험(사진출처: 필자)

빅데이터 구축,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로운 노동형태에 대응하는 산재 예방 사업 등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신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 지역 산업 · 인재 육성으로 지역 활력 제고!

공단은 2018년부터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해 '안전 신기술 공모전'을 개최하며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 · 육성해오

고 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멘토링과 테스트베드 제공, 판로 확대를 위한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여, '수요-공급 매칭 프로그램' 운영,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데모데이' 개최, 대출 보증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이 가진 한계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고, 다양한 신기술이 실제 현장에 접목되도록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산재 예방'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안전보건 인재 양성을 위해 울산대 등 대학생을



2022년 울산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매칭데이 사진(사진출처: 울산지역문제해결 플랫폼)



2022년 울산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설명회 상담창구 운영(사진출처: 필자)

대상으로 한 ‘오픈캠퍼스’, 취업 연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오픈스쿨’을 운영 중이다. 각각 국토교통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주변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는 노력을 통해 보다 많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

## 공단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사회공헌활동 추진

먼저, 공단은 2021년 출범한 ‘울산지역문제해결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역의 환경,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도수용 보호안경 제작’ 과제 등에 참여하면서 공단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울산에서 17년 만에 개최한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해 개최에 앞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해외동포 선수단 숙소 제공, 의료인력 지원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정 한글교육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창업공간 제공과 공공구매 상담회 등 판로 확대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펠트병 자원순환 사업 등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합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Mini Interview

## 울산 혁신도시의 지게꾼으로 살다



이승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홍보사업부 대리

### 간략한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홍보사업부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입사 10년 차 이승우 대리입니다. 2016년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관한 공공기관 채용 수기 공모전에 참가해 장려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공공경제』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어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 울산 혁신도시의 장점과 단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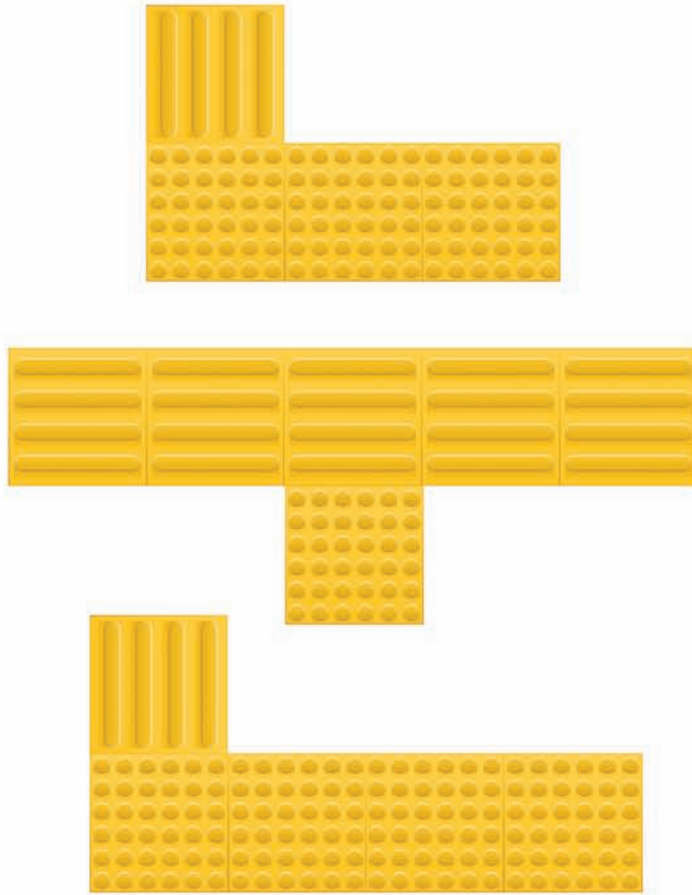
혁신도시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더불어 가로수, 조명 등 도시경관이 잘 조성되어 있어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산책하기 좋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어서 그런지 산책하다 간혹 족제비나 뱀도 볼 수 있고, 겨울이 다가오면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약 10만마리 이상의 까마귀 떼 군무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 혁신도시는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생활 편의시설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조금은 이동이 불편하고 적막한 느낌이 드는 게 단점입니다.

### 상사와 일하기 좋다고 생각할 때는?

홍보 직무에 몸담고 있다면 매 순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전 국민이 열광하던 밈(meme)이라도 금방 사라질 수 있고, 갑자기 엉뚱한 물건이나 말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신 트렌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홍보사업부 부장님은 50대지만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십니다. 최근에는 AI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보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부서원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 혁신도시에서 향후 계획은?

우리 공단 직원은 부서별 순환근무를 하고 있어 언제까지 혁신도시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운동을 해서 근육질의 몸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혁신도시 내 산책로와 공단 내 체육시설, 인근 체육시설(수영장, 헬스장)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운동을 꾸준히 해보려 합니다.



당신이 오늘도 밟은 이것은,  
누군가의 '눈'입니다.

시각 장애인 유도 블록은 시각 장애인의 내비게이션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밟고 서 있을 때, 시각 장애인은 길을 잃습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채용정보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2010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해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 재단은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를 미션으로, '저널리즘 가치 실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저널리즘 신뢰 강화, 혁신경영 강화, 정부·공공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 언론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직무능력 중심의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합니다. 재단의 채용 절차는 정규직 신입사원을 기준으로 1차 서류 전형, 2차 필기 전형, 3차 면접 전형까지 총 3단계로 진행되며, 각 전형은 제로베이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재단의 NCS 기반 채용시스템에서 지원자는 서류 전형 시 대학, 전공명 대신 직무와 관련 있는 교육사항을 기재하며, 필기 전형 시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을 통해 재단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췄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모든 채용 과정에서 출신 지역, 가족관계, 나이, 성별 등 직무역량과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면접전형에서 지원자의 이름 대신에 수험번호를 사용하는 등 모든 지원자에게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도록 직무와 관련 있는 교육, 경력·경험사항, 우대·가점사항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소개서는 작성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에 맞게 본인의 강점과 재단 사업 수행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는 솔직하고 신중하게 작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착오 입력 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제우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과장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시험은 3가지로 구성됩니다.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채용 분야와 관계없이 공통으로 진행되며, 직무수행능력 평가와 직무논술은 채용 분야별로 출제 영역이 정해집니다. 출제 경향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샘플 문항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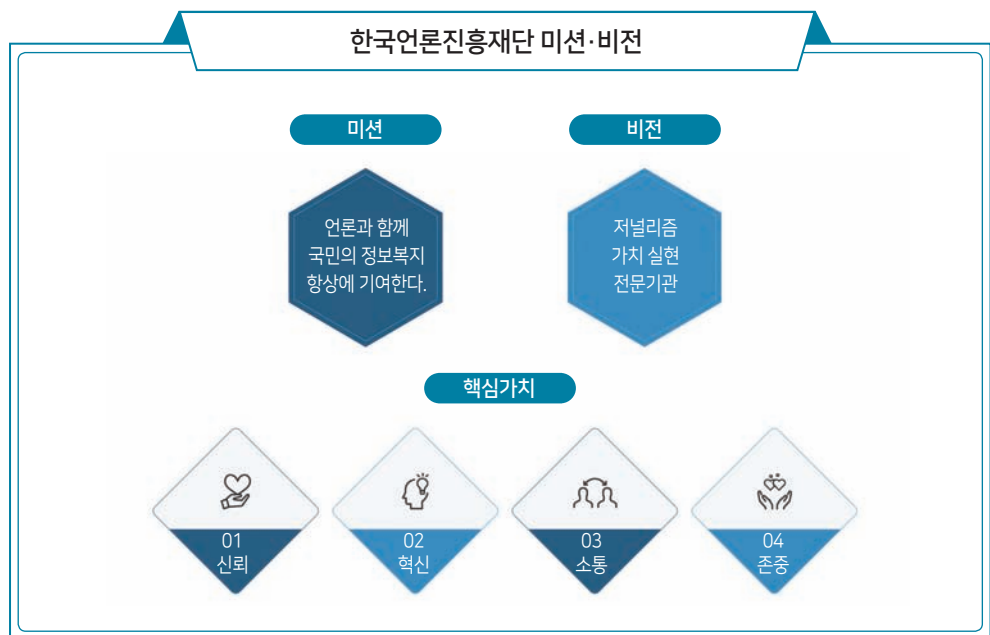
재단 직무논술은 재단의 미션·비전, 주요 미디어 이슈를 참고해 시험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발간하는 『신문과방송』을 정독하시고, 제한 시간 60분 이내에 글을 완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은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으로 진행하며, 면접자는 실무면접에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받고 임원면접에서 조직적합도를 검증받습니다. 응시자는 본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재단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잘 설명하면 면접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입사지원자는 모든 채용 전형에서 시간 엄수가 필수입니다. 마감 시간 이후 지원서 접수 건은 불합격 처리되며, 필기시험과 면접심사 모두 제한 시간 이후에는 시험장 입실 자체가 불가능한 점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재단의 간행물을 참고하시거나 체험형 청년인턴 등을 통해 재단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직무 경험을 쌓기를 권장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시는 지원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 나만의 캐릭터로 승부하라!



최미연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전략팀 사원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전략팀 사원 최미연입니다. 저는 공공기관 입사 전 언론사에서 2년간 아나운서로 일했습니다. '저널리즘의 가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뤄보고 싶어 재단에 지원했고, 현재 입사 3년 차입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현재 담당하는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광고전략팀에서 광고단체 지원 사업, 정부광고가 무엇인지 알리는 교육 기획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국회 요구 자료 답변에 담기는 데이터의 관리도 맡고 있습니다.

###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토론 동아리가 가장 도움이 됐습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시사 이슈와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다뤄지는 논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토론 스터디를 하며 자료검색 방법, 독해력, 논리적 말하기 능력 등을 자연스럽게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는 취업

준비할 때 관련 산업, 기관과 관련한 시사 이슈를 찾고 익히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기소개를 구성하거나 면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오면 자신 있게 스스로의 생각을 답변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 취업 준비 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역량이나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어른스러움'이 차별화된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이 단어를 '어른스러움'이라 해석하고 전형의 전 단계에 임했습니다. '이 지원자라면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취업 담당자에게 메일을 쓸 때도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등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했습니다. 인성면접과 상황면접, 두 면접에서도 '책임감이 느껴지는 답변'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이 점이 지루하게 들리지 않도록 유념했습니다. 1분 자기소개 등도 미리 외웠지만 자연스러운 PT 발표를 하듯 깔끔하면서도 즉석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습해서 갔습니다. '어른스러움'을 제 캐릭터로 삼아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데이터 관리 능력'을 중점적으로 준비했고 이 역량들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해보니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일의 호흡이 길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전에는 방송사에서 매일 '마감 시간'을 항상 유념하고 일하다 보니 업무의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 어려웠습니다. 공공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호흡이 짧으면 분기별, 보통은 1년 단위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개선 사항을 발견하면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현재 담당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은 점은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과 함께, 언론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재단의 사업을 하며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언론 관련 지식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즐거움입니다. 어려운 점은 공공기관 행정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 관련 법령, 지침 등을 사전에 경험해보지 않아 처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행정에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있거나 인상 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제가 취준생 때 받았던 도움을 입사 후에도 잊지 않고 꼭 다른 취준생들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때마침 재단에서 진행하는 ‘공공기관 멘토링 사업’이 있어 멘토로 참여했습니다. 약 1년간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고 자기소개서 컨설팅도 진행했습니다. 연말에 재단 멘토링 사업 담당자에게 ‘특히 최미연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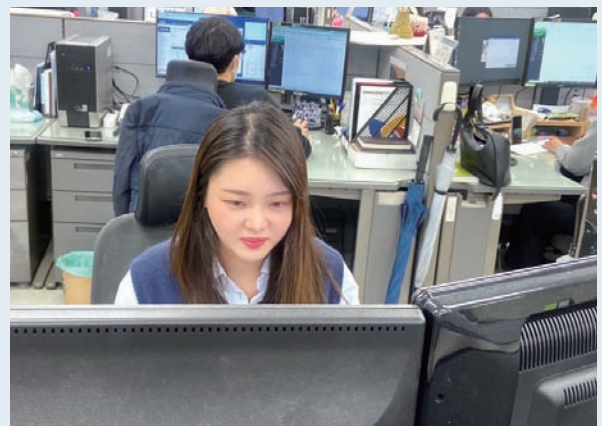
드라마 ‘미생’을 보면 선배, 동기가 치열하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해서 혹시나 권모술수를 연마해야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에서 업무하다 보니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선배에게 SOS를 보내면 친절히 알려주시고 동기 또한 곁에서 힘과 지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공존이 아니면 무존이다”라는 버트런드 러셀의 말처럼 회사 생활 또한 팀워크가 중요하기에 드라마 속 ‘암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다”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실전 입사 지원, 실전 면접, 실전 NCS 시험 등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준비할 때 ‘장기적인 준비’와 ‘단기적인 준비’로 나누어 입사시험에 대비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준비’는 ‘내가 왜 이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이 기관이 한국 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설립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단기적인 준비’는 NCS 모의고사 풀기, 논술 대비 등이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준비는 말 그대로 하루 만에 찾아지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물음이어서 면접 전까지 ‘나만의 답변’이 있어야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하는 고민이 결국은 입사 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고민을 두려워 말고, 고민을 잘못된 것이라 여기지 말고, 용기 내 마음껏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용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나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현재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 영역을 대상으로 창조와 매개, 향유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예술 창작 지원과 문화예술 향유 지원, 예술 현장 전문인력 육성 등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기획 사업 운영을 비롯해 문화정책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채용의 특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채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직무에 따라 필기 전형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전형 단계별로 응시자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기관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으로 성별, 연령, 학력의 제한이 없으며, 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광주, 전남)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전형별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알려주세요.

블라인드 전형은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학교, 성별, 연령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직접 기입한 경우 결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서류 전형을 통해 직무



백지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재성장부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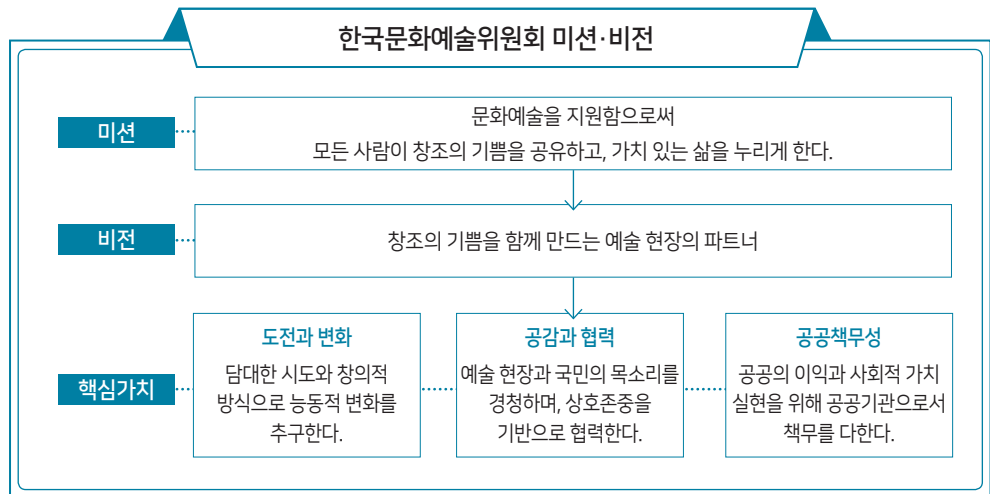
관련 교육 사항과 사전 경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데, 이 중 직무능력이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 기관과 직무에 대한 이해도뿐 아니라 예술 행정을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행정 업무에 필요한 문서 작성 능력과 문장 기술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본인의 생각을 논리 정연하게 글로 표현하고, 기초적인 문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도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필기·면접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필기 전형은 문화예술 분야 단답형 문제의 직무기초 평가와 논술형의 직무심화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문화예술 관련 이론, 기초상식, 예술경영 등에서 폭넓게 출제되므로 평소 예술계의 주요 시사점 또는 키워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면접 전형은 다대다 면접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응시자의 직업기초능력과 직무능력, 조직적합도를 평가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적극적인 태도로 본인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문화예술 관련 논문이나 정책,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 사업을 자세히 파악하고 문화예술 정책 및 예술 현장에 필요한 지원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담당자로서 입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 관련 이론을 꾸준히 공부하는 한편, 다양한 기초예술 분야의 공연, 전시 등을 자주 접하면서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지식, 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것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스펙 쌓기보다는 문화예술 분야 직무와 관련된 많은 경험과 경력을 미리 쌓아두기를 추천 드립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처럼 함께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일 많은 분의 입사 지원을 희망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 노력하면 이루어지리, 아르코 바라기의 업무 Log



문주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후원센터 주임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이하 '예술위') 문주영 주임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후원센터에서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재 담당하는 직무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예술위는 '법정기부금 단체'로서 기부금 모금을 위한 법적 자격을 획득하기 어려운 예술가들을 대신해 기부금을 모금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기부자와 예술가를 연결하는 오작교인 셈인데요. 단순히 모금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 정산과 세금 신고 등 행정적인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부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믿고 기부할 수 있고, 예술인은 오롯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단체가 자체적으로 정기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고, 모금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운영하는 등 기획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재학 중 문화예술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아 문화콘텐츠를 기획하는 청년팀으로 활동했습니다. 종종 지원 공고에 적혀있는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문구를 보며 '예술위는 어떤 기관일까'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평소에도 문화예술을 좋아했고, 자체 후원 브랜드인 '예술나무' 홍보를 위한 캠페인 사업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예술위 일원이 된다면 좋아하는 문화예술과 함께 의미 있는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원했습니다.

### 취업 준비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문화예술 스터디'를 꾸리고 싶습니다. 비전공자라 주변에 문화예술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같은 목표를 가진 스터디원들과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자극과 의지가 됐습니다. 특히 스터디에서 문화예술 이슈를 토론하고 모의로 논술시험을 봤던 경험은 이후 필기시험에서 짧은 시간 동안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 취업 준비 시 본인이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던 역량이나 본인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무엇이었나요?

예술위 필기 전형은 문화예술 분야 주제의 논술과 단답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벼락치기 공부보다 평소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소소하게, 꾸준히'를 취업 전략으로 세웠습니다. 날마다 기사를 스크랩하고 예술위에서 발행하는 연구자료를 확인했더니 지식이 조금씩 늘어남을 느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정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지식을 되새기는 방식의 공부를 하면서 시험 준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현재 담당업무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물 제작 같은 기획 업무를 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점입니다.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 자체도 재미있고, 무엇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만족할 때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종종 예술 현장으로 모니터링을 가는데 그때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즐겁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명성이 중요한 기부금 관리를 하는 만큼 실수하지 않기 위해 꼼꼼하게 더블체크를 하며 항상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입사 1~2년 차 시절 가장 보람있거나 인상깊은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오는 문의 전화가 많은 편입니다. 처음 업무 배치를 받았을 때는 능숙한 답변이 어려워 상대방에서 답답해하는 기색이 보이면 의기소침해지곤 했습니다. 버벅거리는 답변에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지금도 문의 전화가 오면 항상 친절하게 응대하려고 합니다.

**입사 이후 회사 생활과 경험을 비추어볼 때, 입사 전 생각했던 사항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입사하고 나면 많은 업무로 인해 시간 여유가 없어 자기개발을 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술위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근무 환경이고, 무엇보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 꾸준한 자기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공연, 전시 관람 비용이나 외국어 학습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비용 지원으로 전화 영어회화 수업을 등록했는

데, 처음의 의욕과 달리 점점 전화를 회피하고 있어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포함한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꿀팁을 전수해 주세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취업센터 이용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센터에서 채용정보도 얻을 수 있고 상담을 통해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인터넷 강의나 면접 준비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취업 교재를 지원해주거나 면접복을 대여해주는 센터도 많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술위 취업을 준비하면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를 준비한다는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취업 소식에 우울해하기도 하고 나만 취업이 안 되나, 괜히 선택했다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3번의 도전 끝에 가장 목표로 하던 예술위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해하지 않고 지금 본인의 선택과 시간에 집중한다면 그 끝에는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 예술위 로비에서 뵙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글은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 다시 시작할 준비

길고 긴, 끝날 줄 모르는 터널 속에서 늘 생각해 왔다. 무엇이 선행되어야 최선일까. 왼팔 하나로 더딘 생활을 해야 하고 발걸음도 위태롭고 표정도 일그러져 버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나조차도 의문이었다.

‘그럼 왼손을 오른손 못지않게 키워서 일상에 복귀하는 건 어떨까’하며 몇 년을 준비했었다. 그런데 너무 늦게 알았다. 오른손이 20년간 얼마나 많은 경험으로 길러져 온 도구였는지 그 대단함 앞에 뼈저리게 무릎을 꿇었다.

대책 없는 나를 뜯어고치고자 많은 것을 버렸다. 디자인 전공이라 놓지 못하던 프리즈마 색연필들과 아크릴물감, 캔버스, 졸업 작품 전시 이미지들까지도 모두 다. 우울한 에너지가 더 이상 제함을 다하지 못하도록 내 주변에서 치워 버렸다. 그리고 깎두기 공책을 샀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초등학교 때도 빨리 쓰고 나가 뛰어놀 생각에 막써 내려갔던 나인데, 20살에 이걸 이렇게 간절하고 정성 다해 쓸 줄이야. 그런데 확신이 있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거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계속했다.

본격적으로 취업 공부를 하려고 자격증과 NCS 관련 서적을 샀다. 디자인 활동을 즐기며 자유롭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게도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봤고, 그런 내가 나도 신기했다. 그리

고 면접 준비도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첫 면접을 나갔다. 본론부터 말하자면 깔끔하게 떨어졌다. 아니 하나도 안 깔끔했다. 우려하는 표정들과 질문들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도 내 모습이 몹시 불편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남까지 생각해 줄 여력이 없었다. 그렇게 몇 군데 공기업을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렇게 자신감 없이 인터넷 강의를 듣다가 문득 나온 이야기가 맘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농구선수라 가정하자. 경기에서 이기고 싶으면 뭘 해야 하지? 농구의 역사를 줄줄이 외우고 게임의 룰을 밀줄 쳐가며 공부하면 경기에 도움이 될까? 아니 직접 농구 게임에 많이 나가 봐야지. 뛰고 땀 흘려봐야지.”

의자에 앉아 하루하루 열심히 해 온 내가 부정당한 기분이라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데 이 말이 줄곧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고 결국 마음속까지 뒤흔들어 놓았다. 나를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그래, 이 상황이라면 솔직히 내가 회사라도 나 안 쓰겠다. 각성하자.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자.

그래서 난 중소기업 아웃바운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단지 나를 안 뽑아줘서 포기하고 그곳을 택한 것만은 아니었다.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보



김미경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담부 대리

통 아닙니다!” 나를 입증해 보이고 싶었고 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 1년 후엔 자신감이 생겨 다른 일에 도전해 보고 싶어졌다. 활동적인 프로모션 의류업체에 막내로 들어갔다. 동대문시장에서 눈으로 직접 이것저것 색깔을 보고 재질을 느껴보고 제일 나은 것으로 샘플을 주문하고 다녔고 그 결과 지구력이 상승했다. 그렇게 여러 방면으로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확신도 생겼다. 때론 고약하게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럴 수록 내 이야기들이 늘어가는 거라 적금을 적립하는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돌아 돌아 어느덧 30대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해볼까?’하는 두렵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공기업의 문을 두드렸다.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커리어를 쌓는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자격증 공부에 부족했던 탓에 번듯한 자격증이 없다는 것. 머리를 짝 쥐며 후회를 만끽했다. 왜 나는 두 개를 동시에 못하지? 커리어를 6년 동안 다졌으니 이제 자격증 준비도 6년 동안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내가 나를 잘 보여주고 내 경험들을 답변에 잘 녹여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을지 모르다며 나에게 최면 아닌 최면을 걸고 면접을 갔다. 다행히 상황면접에서 침착하게 답변했고 내 경험들과 질문들의 접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도 솔직히 이야기했다. 평온하고 당당하려 애썼다. 절실함이 혹 불쌍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불안하기도 했다. 마지막 길고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나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내가 시민금융진흥원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면접관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면접 막바지에 업무 관련 자격증을 말해보라며 간결하게 질문하셨다.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질문이었다. 올 것이 왔구나. 머리를 굴렸다. 없지만 뽑아주신다면 취득할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구구절절 나의 우선순위를 말씀드려야 하나. 그런데 그

리 길게 고민하진 않았다. 아무리 멋지게 포장하려 해도 뭐가 있어야 포장을 하지, 없는 건 없는 거다. “없습니다.” 나도 간결하게 대답을 드렸다. 면접관은 무뚝뚝하게 내 이력서에 뭔가를 체크했다. 그 순간 하늘이 무너졌다. 내 대답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아닌 답변이 분명했다. 아, 떨어졌구나. 아무리 상황을 녹여내고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면 뭐 하나, 증명이 부족하잖. 더 공부하자. 이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면접관이 체크 후 무심하게 허공을 응시하며 한마디 했다. “없으면 와서 따면 되지.” 이 말은 곧 나를 뽑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내뱉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내 멘탈은 살얼음 멘탈이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말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며칠 후 합격했다는 문자를 받고 그때 면접관이 했던 말을 생각하니 지난 10년을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나의 상황과 비슷한 분들께 감히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일이든 생각할 시간에 행동으로 옮겨보길 바란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처도 여러 번 생기면 굳은살이 되어 버틸만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면접은 한군데만 정하지 말고 되도록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단련되어야 한다. 나는 병원, 집에서 너무 보살핌을 받아 망각했다. 사회는 다른 곳이란 것을. 나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난 동료와 함께 발맞추는 사람이고 싶다. 자격증 공부 이야기는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라 아직은 말을 아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기업에 취업하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부디 이 글을 보게 될 모든 취준생은 단기간에 이루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나는 이만 자격증 공부와 출근 준비를 하기 위해 글을 마치지만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공부하고 경험 중일 분들께 존경을 표한다. 나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배움에 행복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글은 '2021년 공공기관 입사수기 공모' 당선작 중 장애인채용 부문의 작품을 전재한 것입니다.

## 느리지만 강한 나의 성장기

### 온실 속의 화초

온실 속의 화초. 나의 어머니 같은 존재인 외할머니가 나를 표현하는 말이다.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서도 우리 할머니는 나에게 '온실 속의 화초' 같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고생한 번 해보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한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아마 결정적 이유는 나 스스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 같다. 또래보다 용돈을 많이 받기도 했고, 사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등 원하는 것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대부분 해주셨다. 외가와 친가 모두에서 나는 첫째 아이였고,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였다. 나는 어른들이 나를 애지중지하며 키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하지도 않다. 그래서 그 말이 싫었던 것일까?



김종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대리

### 생명의 위협과 후천적 장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팠다. 무릎을 구부리기 어려웠다. 미련하게도 수개월간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곧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계속 아프면 문제가 될 것 같아 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물리치료, 침 치료 등 병원을 옮겨 다니며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차도는 없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시간도 병원에 가야 해서 자주 빠졌다. 친구들은 내가 야자하기 싫어서 피병을 부리는 것이라 생각했다.

어느 순간 나는 심각성을 깨닫고 의사 선생님께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검사 후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골육종이라는 암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암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드라마 주인공이 앓던 암이 나에게 있으니 곧 죽겠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몇 개의 단어와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항암치료와 수술, 수차례의 재발과 전이, 다시 치료와 수술. 살면서 8번이나 가슴을 여는 수술을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장애가 생겼다. 당시 나는 내가 나라에서 인정해 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부모님께서도 힘든 치료를 받는 어린 나에게 그 사실까지 말하지 못했던 것 같다.

### 포기하는 삶과 포기하지 않는 삶

고등학교 3학년쯤부터 본격적인 치료와 수술이 시작됐다. 대학 입학은 생각할 수 없었고 포

기하는 것이 당연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치료 과정은 종결됐다. 하지만 내 몸은 이전과 달랐다. 체력은 말할 것도 없이 항상 몸이 약했고, 장애가 생긴 다리로 인해 보행이 어려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치료는 끝났는데 이전과 같은 생활로의 회복은 끝나지 않았다. 친구들의 대학 생활, 밖에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들, TV 속 행복한 사람들을 보며 나의 마음은 어둡고 깊은,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렇게 1년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엿 들었다. 내용은 내에 대한 것이었다. 내가 포기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우리 가족 모두가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족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정신 차릴 수밖에 없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지금부터 내 인생을 가치 있는 하루들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가장 열정을 다해 살았던 것 같다. 나는 다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재활과 입시 준비를 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살면서 나도, 우리 가족도 이전의 삶으로 점차 회복하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장애인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재활이 성공적이었다. 당시 치료사가 말했던 '운동선수가 하는 만큼의 운동과 필사적인 재활'을 철박하게 수행했고 장애를 정말 많이 극복했다. 공부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서울의 모 대학에 입학해 대학 생활을 하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 보고,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다. 포기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이었다.

### 3개월 인생과 3년 인생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암 재발이 수차례 있었다. 치료와 요양을 위해 휴학을 최대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전처럼 포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미래를 계획할 수는 없었다. 3개월 주기로 병원 정기검진이 있었고, 검진 결과에 따라 다시 병원에서 오랜 기간 치료와 수술을 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매번 3개월간의 계획만 생각했다. 사소한 계획조차 검진일자를 고려해서 결정했다. 나는 그렇게 3개월짜리 인생을 살고 있었다. 취업할 시기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인 부분까지 포함한 완전한 독립을 할 나이가 다가오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점차 커졌다. 한편으로는 현실로 다가온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더라도 내가 3개월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암과 장애라는 힘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만들어진 내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스스로 끊임없이 되물었다. 그리고 답을 얻었다. 마음가짐. 그것만 달라지면 소중한 의미 있는 하루들을 갖겠다는 삶의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 3년... 점차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 배움, 그리고 배움의 시작

나는 인생에서 꽃 같은 시기인 10대와 20대에 많은 부분을 장애와 질병으로 인해 희생당했다고 불만을 느끼기도, 핑계를 대기도 하며 도망가거나 합리화하는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20대 후반부터 이 버릇을 고치어야 말겠다고 다짐했다. 노력의 방법은 배움이었다. 학문 외에 주변 모든 것이 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어리석어 늦게 깨우친 만큼, 늦게 시작한



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자 노력했다. 조금은 조급했었다. 먼저 나를 이해하고 싶었다. 나를 이해하려면 내가 가진 장애를 이해해야 했다. 나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들어내는 것,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의 출발점이라 생각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학생봉사단에 약 1년간 참여하며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를 했고,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2곳의 기자단, 정책 모니터링단에 참여하면서 장애인과 장애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졌다.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을 한 명 한 명씩 모아 여행 관련 배리어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설득하고 제안했다. 시각, 청각, 지체, 언어 등의 장애 대학생들을 모았고 여러 기업으로부터 후원받아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기도 했다. 경험을 해본다는 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의 나는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 공공기관 취업과 성취의 방법

사회복지 관련 정책을 다루고 실행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취업을 목표로 했다. 사회생활 경험을 하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시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입사를 위해 필수로 준비해야 할 NCS(국가직무능력표준)를 공부했다. 다행히도 목표로 했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직할 수 있었다.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하거나 재능이 뛰어나거나 그런 이유는 아닐 것이다. 내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 약점과 강점 그리고 내 장애를 이해하는 것, 즉 한마디로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목표와 관련된 경험을 했으며, 세 번째는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지속했다는 것이다.

### 느리지만 강하다

나는 나를 성장시키기에 너무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하겠지만 나는 똑똑하지 않고 아주 느리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꾸준함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내가 느리지만 강한 이유이다. 취업 후에도 나는 사회에서의 또 다른 나를 정립해 가고 있다. 그리고 배우고 있다. 근로 능력을 기르기 위해, 내가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 다양한 계층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나는 느리지만 강하다.○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

#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세요.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금의 부과·징수 등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세요. ”



## 요청 방법

### 세무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권리침해 사실을 권리보호(심의)요청서에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요청

권리보호(심의)요청서 내려받기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신청



## 문의·상담

-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국세상담센터(☎ 126 ▶ 3 번)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
- 납세자권익24(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권리보호 유형

###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등

### 세무조사 외 일반 국세행정이 진행 중인 경우

-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리 지연
-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지연
-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 고대 영산강 사람과 동물

People and Animals  
of the Ancient  
Yeongsangang River

2022. 9. 30. ——— 2023. 2. 5.

국립나주박물관  
기획전시실

2022년 전라남도  
마한문화행사 기념

기획특별전  
Special Exhibition

주최  
국립나주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전라남도  
Jeollanam-do

후원  
(사)국립나주박물관후원회

